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정책 이야기

행복한 교육

새 정부 출범, 우리 교육에 바란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지원시스템
나를 사랑하는 자존감 회복 교육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방안

너의 진로고민을 들어줄게

걱정말아요, 진로고민!

진로정보망 커리어넷과 함께 하는

2017 진로 토크 콘서트



2017.06.14.(수) 13:30~16:00 충남대학교 백마홀

주제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로 준비

(분야: 드론, 로봇, IoT, 가상현실(VR), 인공지능, 딥러닝)

질문예시

- 가상현실 분야에서 일하려면 어떤 학과로 가는 게 좋을까요?
-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 않을 직업은 뭘까요?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현재보다도 더 빠르게 직업이 생겼다가 없어진다는데 앞으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주제 2. 참의적인 진로경로 설계

질문예시

- 저는 중학생이라 아직 대학, 취업 그런 걸 잘 모르지만 미래를 잘 준비하려면 고등학교 3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 저는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했는데 대학 학과 중에 융합전공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어요. 융합전공에서는 뭘 배우는 건지 궁금해요. 이런 학과로 진학하는 게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

행복한 교육 2017년 6월

기획 -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지원시스템

교육부





CONTENTS

VOL. 419 JUNE 2017

현장 이야기

새 정부 출범, 우리 교육에 바란다	02
꿈이 영그는 현장 울산 전하초등학교	06
삶과 교육 류제일 아산복수초등학교 교장	12
이런 수업 어때요 임성숙 수석교사의 '과학과 전시장 수업'	16
아하! 창의체험 고창 신희초등학교 '외발자전거 타기'	20
화제의 교사 박병찬 강원명진학교 교사	24
학교가 즐겁다 한여름의 무더위를 날리는 놀이	26
에너지충전소 대구 인문학 책쓰기 교사 지원단 행복수업연구회	28

정책 이야기

기획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지원시스템	
'한 사람'을 아끼는 교육	32
교육에 소외되는 이 없는 세상을 만든다	34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품은 '대안교실'	36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시스템	38
정책N전망 PISA 2015 학생 웰빙보고서 의미와 과제	40
정책 특(Talk)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42
정책카툰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 마련	44

정보 이야기

교육논단 나를 사랑하는 자존감 회복 교육

자존감에 대한 오해와 이해	46
교실 속 아이 자존감 높이는 교사의 실천	48
시도교육청 플러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 대전/경남/충북/세종/대구/부산/전남	50
세계의 변화 교육의 진화 창의적 아이디어에 메이커 교육을 더하는 미국	54
학급경영노트 학급경영 하수, 중수, 고수의 차이점	56
아이의 다락방 요즘 애들 어디 가서 놀까?	58
학교 밖 학교 나라사랑 앞장서는 통일안보체험	60
알아두면 유용한 교육민원	62
명예기자 리포트 '소리로 마주보는 세상' 외	63
진로나침반 1인 미디어시대 '미디어콘텐츠창작자'	68
대학길잡이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노하우②	70
자녀교육 Q&A 감정 조절에 능숙한 아이로 키우기	72

교양 이야기

이야기 인문학 신음하는 대지와, 침묵하는 신	74
생각나눔 학교급식 반반 줄이는 딱 좋은 방법	76
뉴스브리핑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사업, 100개교 선정 외	78
행복게시판 구독신청 & 이벤트	80



COVER STORY

전북 고창 신희초등학교(교장 홍정임) 학생들이 외발자전거를 힘차게 굴린다. 전교생 34명이 방과후 수업으로 외발자전거를 배우는 신희초는 한 개의 바퀴로 지구를 다 돌 것처럼, 지칠 줄 모르고 힘차게 달린다.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 명예기자가 전하는

새 정부 출범, 우리 교육에 바란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기틀을 새롭게 정비하고 희망이 싹트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맞아 교육가족들은 우리 교육에 어떤 바람과 기대를 안고 있을까요.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 7인이 전하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교육계 조화와 균형에 교육부가 중심에 서길”



글: 김길동 풍문고등학교 교감

교육부는 우리나라의 교육의 방향기를 쥐고 있는 미래한국의 나침반입니다.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사회와 시대 흐름을 직시하는 해안으로 그야말로 교육의 본령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국가의 미래와 국민 행복을 만드는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교육부는 교육이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교육수요자인 국민적 합의를 전제한 국가 교육 시스템의 재정비를 주관하는 주무부처로서 교육부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교육개혁은 교사를 통하지 않고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직의 전문성 신장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의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교사의

행정 업무 경감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특단의 조치를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고용이나 복지 정책과 연동되는 정책을 발굴, 시행하여 사회 전반의 체제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주체도 되어야 합니다.

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개발 및 시행, 예측 가능하고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대비할 수 있는 대학 입시의 방향 제시, 교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원 평가 제도 개선, 그리고 각종 교육단체를 아우르는 교육대토론회 등을 통한 교육계의 대타협을 교육부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교육 입국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새 정부가 성공하는 정부가 되고 교육부가 국가 교육의 중심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함과 당당함을 키우는 교육으로”



글: 노익희 BUK인재교육원장

지난 5월 9일 파킨슨병으로 고생하시는 94세 어머니가 형에게 업혀 기어이 투표장에 나가 직접 대통령을 뽑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이 13번이니 어머니도 13번을 투표하신 셈입니다.

성남시 시장의 가게 십여 개를 운영하던 아버지가 그만 돌아가신 후 사기를 당하시고 길거리에 나 앉은 어머니는 정직한 사람들과 정당한 사회를 무척 갈망하셨습니다. 무학으로도 홀로 사남매를 키우시고 아흔을 훌쩍 넘기신 어머니는 의롭고 정당한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길거리에 나 앉은 어머니를 지켜 주었던 것은 무엇이

였을까요? 아마도 자식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식들 때문에 울지 않고 의지를 키웠던 어머니, 무허가 판자집에서 살며 과자를 팔다가 용역들의 폭력에 손목을 크게 다쳤던 어머니는 아이들이 바르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에 힘을 쏟으셨습니다. 스스로도 글을 배우고 싶어 하셨던 어머니는 독학으로 한글을 깨치시고는 책읽기와 글쓰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그토록 염원하고 선택한 새로운 정부의 모습은 정당함을 추구하고도 늘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꾸십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이 골고루 이뤄지기를 가장 바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글: 최석원 학부모

학부모는 아이의 학년이 올라가는 만큼 비례하여 함께 성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정점에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제가 꼭 바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 공교육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 둘은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도 명시한 자신의 학년에 맞는 학습을 한 학생들이 패널티를 받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2학년인 현재, 11년 가까이 학부모로서 아이와 함께 호흡하면서 바라왔던 건 학년에

맞는 학습을 하는 학생이 대접받는 나라입니다. ‘대학에서 완전한 학생을 뽑을 것을 요구한다. 너무 지나친 것 같다.’는 모 교육방송에서 고등학생의 불멘 인터뷰가 아직도 진한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새 대통령님께서 “나라를 나라답게, ‘답게’ 하자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답게’ 하자는 얘기는 없는 것을 만드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교육 시장이 발붙일 수 없는 자연스러운 시스템을 만들어 공교육을 바로세우고 학생이 학습스트레스 없이 자신의 학년에 맞게 학습하는 선행학습금지법에 정한 원칙이 잘 지켜져서 학교가 원래의 기능에 충실한 학교다운 학교가 되게 만들어 주는 일, 이번에는 꼭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아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글_ 구영목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생애 첫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유아교육이 이뤄집니다. 아이의 시작을 함께 하기에 유아교사에게는 “가르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 대한 몰입”이 무엇보다 중요한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교수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연스럽게 유아의 학습에 대한 동기와 몰입, 성취에도 영향을 주리라 봅니다. 아이들이 다가와 이면지에 편지를 적고 색종이와 색지로 팔찌를 만들어 건네며 “선생님, 선물이예요”라고 수줍게 말할 때면 또 한 번 사랑스러움을 느끼지요. 그러나 교사로서 행복감과 별개로 가장 중요한 직무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교육 환경은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교사 한 명이 정말 다양한 여러 업무를 도맡아

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의 경우,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하게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장이 개선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평가로, 교사들이 내실 있는 교육과정에 힘쓸 수 있는 평가가 되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바란다면 누리과정의 유아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가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의 주체와 책임이 분명해지길 기대합니다.

교사의 질이 곧 교육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스스로 주체가 되어 계속적으로 현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목표는 교사와 아이가 모두 행복하게 어우러지는 참된 교육이니까요.



“학교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변화를”



글_ 이미경 청옥초등학교 교사

어느 학부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에서는 최소한의 인성을 배우고, 학원에서 지식을 쌓는다.”라고 뿐만 아니라 학교는 가르치고 배우는 곳보다는 ‘교육실적’을 쌓는 곳으로 바뀐 것 같다고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말씀 하나하나 경청하며 교육자로서 우리 교육을 다시 한 번 찬찬히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보고 있는가. 혹시 수많은 보고서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아이들의 모습을 ‘실적’이란 이름으로 교육정책의 효과만 따지는 않았을까.

이제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

을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교육정책을 일방적으로 실행하기에 앞서 학교 현장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여 주세요. 아무리 좋은 교육 자료를 만들고 개발해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 해도 이를 실행할 현장의 여건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그림의 떡’에 불과할 뿐입니다.

바라옵건대 새 정부의 출범은 새 교육의 출발이 되길 희망합니다. 무릇 새 교육이란 학교가 가르치고 배우는 곳으로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정이 위에서 아래로가 아닌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변화가 되길, 학생 한 명 한 명이 행복하게 될 지름길이 되길, 이로 인해 공교육에 대한 생각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졸 취업생에게 더욱 열린 기회를”



글_ 양지훈 안산공업고등학교 교사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기업 모두가 함께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형식적이지 않고 실천적인 직업교육으로 학생들의 꿈이 실현되는 날을 누구보다 오래도록 꿈꿔 왔습니다. 한 발 일찍 자신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학생들을 보면서 더욱더 행복한 직업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바람을 적어봅니다. 하나,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이 되길 바랍니다. 실습 현장 공간의 안전 진단을 통하여 안전 위험이 예상되는 공간이 사전에 예방되고, 실습 현장 전 안전복장 점검 및 안전 교육이 반드시 실시될 수 있는 안전 지킴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둘, 스펙 쌓기가 아닌 전공 실력을 쌓는 능력중심의 직업교육이 되길 바랍니다. 능력이 우선시되어 직업 현장에서 실력을 통하여 능력을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구축되길 희망합니다. 셋, 계속해서 꿈을 찾고 실천할

수 있는 직업교육이 되길 바랍니다. 현재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일·학습병행제가 실시되고 선취업·후진학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안정적인 직업교육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고졸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취업 현장의 소중한 자기계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 학교현장과 실습현장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직업교육이 되길 바랍니다. 학생, 학부모,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이 직접 방문하고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공유하여 생생한 직업교육 현장을 통한 이해가 이루어진다면 직업교육이 더욱더 효과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과정이 중요시되는 직업교육이 되길 바랍니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초교육부터 심화교육까지 체계적인 단계별 직업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적성과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마련되어 자신의 전공과 연계하여 폭넓은 직업분야를 탐색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비 부담 덜고 꿈꾸는 청년으로”



글_ 김혜림 고려대학교 대학생

대한민국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장미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며 달 질 대한민국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생으로서 우리사회에 산적한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희망을 가져봅니다. 해마다 거론되는 등록금 인하는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는 희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몇몇 국립대학을 제외한 대부분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큰 부담입니다. 학생들 스스로의 힘으로 충당할 수 없기에 사회의 출발선부터 빈부격차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비판에서 언제나 자유롭게

못합니다. 나아가, 대학생의 주거 문제에서도 희망을 엿볼 수 있을까요.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숙사가 부족한 탓에 부담스러운 월세를 감수하며 고시텔이나 원룸에서 지내는 학생들이 적지 않기에 또 다른 희망을 가져봅니다.

한 가지 더. 한 학기 대학생활을 결정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학생의 요구가 반영된 학사제도 개편으로 우리가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개선되길 기대해 봅니다. 대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는 나라, 새 정부에서는 원하는 학문을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하며 자신만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교육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㉞

평창 동계올림픽을 알리는 꼬마전령사 동계스포츠 시범학교에 자부심 가득

지난 2011년 7월 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평창”이 호명되자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세”를 외쳤다. 평창이 세 번째 도전 끝에 승리를 거두며 2018년 2월 지구촌 겨울대축제인 동계올림픽을 치르게 된 것이다. 50년 남짓의 짧은 동계스포츠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가 올림픽 개최국으로 선정된 것은 동계스포츠 불모지에서 이룬 남다른 쾌거였다.

그때의 합성을 기억하듯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를 누구보다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평창에서 멀리 떨어진, 겨울스포츠가 조금은 생소한 울산 전하초등학교(교장 김영현) 학생들이다. 교육부 요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지정한 학교체육(동계스포츠) 시범학교인 전하초는 지난해부터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5월 17일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진행하는 학교방문 프로그램으로 학교는 어느 때보다 떠들썩했다. 5학년 학생 200여 명은 오전 내내 다양한 스포츠체험을 즐기며 환한 웃음을 터트렸다.

평창 동계올림픽위원회 운영 ‘학교방문 스포츠체험’

전하초에서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는 어린이들의 대통령 ‘뽀로로’ 인기 못지않다. 백호와 반달가슴곰을 모티브로 삼은 마스코트에 아이들은 연신 “귀엽다.”며 눈을 떼지 못했다.

학교방문 프로그램이 열린 전하초 다목적강당. 연단 위 대형 스크린을 통해 수호랑과 반다비가 동계스포츠 경기종목을 소개하자 일부 아이들은 몸짓을 따라하며 까르르 웃음을 터트렸다. 영상이 끝나자 봅슬레이 국제심판 자격증을 보유한 김아람 씨가 마이크를 잡고 아이들 앞에 나섰다. 동계스포츠를 주제로 열린 ‘도전, 골든벨’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퀴즈를 함께 풀어 볼까요?”

10여 명씩 모여 앉은 아이들은 눈을 빛내며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다. 평창올림픽 모토인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를 모두 맞추더니 올림픽의 공식 엠블럼 오륜기가 의미하는 5대륙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메리카도 막힘없이 써내려갔다.

“오륜기의 다섯 색깔인 청색, 황색, 흑색, 적색, 초록색은 각 나라의 국기들이 거의

울산 전하초등학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를 누구보다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평창에서는 한참 떨어진 겨울철 스포츠가 조금은 생소한 울산 전하초등학교 학생들이다. 학교체육(동계스포츠) 시범학교인 전하초는 지난해부터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과 반다비

학교방문 프로그램 스포츠체험 ‘공 튀기기’



01 교내 1층에 조성한 동계스포츠 홍보관
 02 04 동계스포츠 주제로 열린 '도전! 골든벨'
 03 동계스포츠 학습지도자료 워크북
 05 동계올림픽 미술공모전
 06 동계올림픽 프로젝트 수업 결과물
 07 쇼트트랙 교내대회



이 다섯 가지 색깔로 구성된 데서 힌트를 얻어 만들어졌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메달을 가장 많이 딴 성씨는 무엇일까요?
 여러 답들이 나오는 가운데 “김씨”라고 정답을 외치자 와~하는 함성이 강당을 울린다. 이색적인 퀴즈로 웃는 사이 평창 올림픽에 대한 아이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협동과 배려를 키우는 스포츠체험

“올해 희망학교 신청을 받아 430개교 중 성화봉송로 인근의 10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자, 금메달리스트 등 올림픽대회에 참여하는 직업인에 대한 진로특강과 스포츠체험으로 진행되지요. 강원도와 관심이 낮을 것 같아 지역에서 대부분 해오고 있는데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처음에는 마스크도 잘 모르던 아이들이 올림픽에 가고 싶다

고 말합니다.”
 평창올림픽조직위 홍보부 대외교육팀 공성에 씨의 말이다. 아이들은 퀴즈를 모두 풀고 운동장으로 나섰다. 공튀기기, 파이프 공넣기, 판뒤집기 등 6개 스포츠 활동에 아이들은 반별로 돌아가며 모든 활동에 참여했다. 전날 미리 게임의 룰을 배운 교사들이 직접 인솔하자 아이들은 더욱 즐거워했다.
 각 스포츠는 승부나 경쟁보다 협동, 배려 등 스포츠 정신이 중요한 활동으로 이뤄졌다. 여러 명이 함께 협동해서 판을 더 많이 뒤집거나, 서로 이어가며 불을 튀겨야 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아낌없는 격려가 뒤따랐다. 공 튀기기를 할 때는 공이 자꾸 옆으로 떨어지자 아이들은 서로 비난하기보다 “괜찮아! 괜찮아! 잘 할 수 있어!”를 연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여러 개 파이프를 이어서 작은 구멍에 공을 넣을 때는 “옆으로”

66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이 원동력이 됐다. 1교사 1연수뿐 아니라 교사동아리를 통해 함께 동계스포츠를 즐기면서 체육활동 최우수학교로 입소문이 났다.

손은경 교감

99



66 아이들이 발산해야 친구관계도 좋아진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자치회의가 0건이다. 울산이 동계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과 인근 자원과 연계하면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박정유 지도교사

99



“조금 더 앞으로” “아직, 됐어!” 등 서로 협력해 성공하자 열싸 안고 기쁨을 표출했다. 허태영 군은 “공 튀기기가 제일 재밌었다. 친구들과 서로 협력하니 연속 9번을 튀겼다.”며 환하게 웃는다. 강동훈 교사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부족한데 이번 방문을 통해서 스포츠 정신을 키우고, 서로 화합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冬Go동락(동고동락)으로 동계스포츠 관심 UP

전하초 학생들의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남다른 관심에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학교체육(동계스포츠) 시범학교 덕이 크다. 교육과정뿐 아니라 동아리 중심의 다양한 체험과 현장 견학은 동계스포츠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를 도왔다. 박정유 교사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동계스포츠 프로젝트 학습을 운영하고, 학년군별로 학습 지도자료 워크북을 새롭게 개발했다.”며 “교내 동계스포츠 활성화 협의회를 운영하고, 동계스포츠 경기 방법 등에 대한 1교사 1연수, 가정통신문·소식지 등을 제작 배부해 동계스포츠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고 말한다.

가장 중심이 된 건 동계스포츠 동아리 활동이다. ‘冬Go동락’은 ‘동계스포츠(冬) 동아리(동) 활동으로 즐긴다(樂)’는 의미를 지닌 전하초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이다. 학급별 동계스포츠 학생 동아리를 조직해 연간 34시간 동안 활동하고, 인근 아산빙상장을 이용해 스케이트 기본자세를 익히고 배우며 빙상 종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위해 울산 과학대학교 스포츠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계올림픽 해설사 협회, 스키장, 눈썰매장 등 지역사회 협조도 구했다. 박 교사는 “99% 학생들이 스케이트를 탈 줄 알 정도로 빙상



경기를 좋아한다.”며 “동계스포츠 종목별 기술이 뛰어난 학생과 저학년 학생, 여학생 등 체육소의 계층 및 동계스포츠 기능과 관련하여 배려 대상 학생을 멘토와 멘티로 연결하여 도울 수 있도록 눈송이 교육기부단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연간 다양한 동계스포츠 활동이 이어진다. 학교동계스포츠 동아리 활동 리그대회, 동계스포츠를 응용한 뉴-스포츠 형태의 전하 동계올림픽, 새로운 축제 문화 형태인 동계스포츠 페스티벌 등이 대표적이다. 강릉에 위치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체험관 견학, 메달리스트 초청 강연 등도 펼쳐졌다.
 그 결과 지난해 5월과 11월 설문조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는 75.4%에서 90.8%로 높아졌고, 동계스포츠 동아리에 대한 만족도도 학생·학부모 모두 86% 이상, 교사들은 100%로 나타났다. 손은경 교감은 “다양한 시범·연구학교를 운영해 봤지만 학교체육(동계스포츠)이 가장 만족스럽고 효과도 컸다. 교사들도 즐겁게 활동하면서 학교를 역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동계스포츠로 스포츠 정신 배워요!”

학교체육(동계스포츠) 시범학교인 울산 전하초등학교(교장 김영현)는 지난해부터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5월 17일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진행하는 학교방문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은 오전 내내 동계스포츠에 대해 알아보고, 다양한 스포츠체험을 즐겼다.

스포츠체험 프로그램 이모저모

초여름 날씨 탓에 강한 햇볕이 내리쬐어도 아이들은 지치지 않았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운동장에서 스포츠체험을 즐긴 아이들은 “신난다.”며 연신 환한 웃음을 지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진행하는 학교방문 스포츠체험은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더불어 이고 지는 승부가 아닌 협동하고 배려하는 스포츠 정신을 일깨웠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도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저도 응원할 겁니다. 경기 종목과 방법도 더 자세히 알게 됐고, 다같이 하는 공룡기기가 재밌다는 걸 깨달았어요.” - 최준석 학생



“총을 등에 멘 채로 스키를 타고 일정 거리를 달리다 총을 쏘는 바이애슬론은 정말 멋져요! 반했더니깐요.” - 강명조 학생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날짜와 엠블럼 등에 대해 알게 됐어요. 저도 이젠 많이 알죠?(웃음) 판 뒤집기를 할 때는 서로 서로 응원했어요. 마스크트인 수호랑과 반다비로 나눠었는데, 상대팀이 이겨도 재밌었어요.” - 이유빈 학생



“파이프로 서로 연결해서 공을 넣는 데 여러 번 실패했어요. 조금만 들어져도 공이 떨어지고 해서 서로서로 조금씩 맞춰갔지요. 구멍에 꼭 들어갈 때는 정말 기뻐요. 친구들이 함께 잘해준 덕분이죠.” - 정예준 학생



간이 컬링으로 동계스포츠 즐기기

컬링(Curling)은 얼음 경기장 위에서 둥글고 넓적한 돌인 ‘스톤’을 표적을 향해 미끄러뜨려 득점을 겨루는 겨울 스포츠 경기이다. 아이스하키나 피겨 스케이팅과 같이 인기 종목은 아니지만 주된 동계올림픽 종목 중 하나로 꼽힌다.

울산 전하초등학교는 컬링을 아이들이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뉴-스포츠 형태인 간이 컬링으로 배운다. 동계스포츠 동아리인 ‘간이 컬링’ 활동뿐 아니라 종종 교내 대회를 통해 승부를 가리고 있어 아이들이 주로 즐겨한다. 바닥의 표적판에 제트롤러를 밀어 넣어 상대방 스톤을 타겟에서 멀리 보낼 때 느끼는 짜릿함이 가장 크다고 취재 날 모처럼 운동장에 간이 컬링을 설치하고, 아이들이 경기에 나섰다. 한 손은 신중하게 제트롤러가 달린 ‘스톤’의 손잡이를 잡고, 한 손은 가만히 내려놓으며 숨을 죽이더니 타겟을 향해 힘차게 밀어 넣는다. 단순해 보어도 “힘의 강약 조절이나 순간의 긴장감이 크다.”며 스톤을 굴린 뒤 그동안 참았던 숨을 크게 들이마신다. 아이들은 ‘빙판 위 체스’라 불리는 컬링을 교내 복도 또는 운동장에서 어느 때나 즐기다보니 “친숙하다.”고 입을 모



았다. 경기를 할 때 경쟁력과 집중력을 키울 수 있어 교육적 효과도 높다고 컬링을 배운 아이들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빙판 위에서 하는 컬링은 더욱 긴장감이 넘치는 동계스포츠입니다. 간단해 보여도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거든요. 컬링을 배우며 다양한 동계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컬링 선수분들! 저희가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우리는 평창올림픽 홍보대사!

전하초등학교 운동장 펜스에는 긴 현수막이 여러 개 걸려 있다. 여기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한 아이들의 응원 메시지가 가득하다. “올림픽 선수들 파이팅!”부터 “꼭 1등 하세요!”란 귀여운(?) 요청도 눈에 띈다.

지난 5월 열린 전하초 동계스포츠 페스티벌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현수막이 만들어졌다. 이 외에도 바이애슬론, 루지, 컬링, 전통놀이 등 동계스포츠 활동을 기반으로 한 체험 부스와 나만의 메달 만들기, 태극기 배지 만들기 등 홍보 활동 부스를 통해 아이들은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홍보하는 ‘동고동락 서포터즈’는 자타공인 대표 홍보요원들이다. 5학년 서포터즈 이호준 군과 문설영 양은 지난해 강릉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체험관을 견학하고, 봅슬레이 경기를 관람하는 등 동계스포츠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높여 왔다.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 스킨레이팅, 루지, 크로스 컨트리 등 조금은 생소한 동계스포츠 종목들도 막힘없이 술술 얘기할 정도로 동계스포츠 지식도 해박하다. 이 군은 “평창 동계올림



픽이 기대된다. 모두 함께 즐겼으면 좋겠다.”고 했고, 문 양은 “캠페인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포터즈를 비롯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원하는 5학년 아이들이 다시 한 번 현수막 앞에 섰다. 그리고 입 모아 말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그동안 피와 땀을 겨루는 지구촌 겨울대축제입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해요! 내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17일간 열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잊지 마세요!”

류제일 아산북수초등학교 교장 “교사는 아이들 곁에 오래 머무는 사람”



햇살이 내린다. 아이들 뛰노는 운동장 위로, 말갭게 비치는 유리창 안으로, 교실 책상 위로, 걸음 아래로, 골고루 순조롭게 봄햇살에 젖는다. 두 뺨 흠에서도 작은 생명이 자란다. 쪼그리고 앉아 가만가만 들여다보면 우주만큼 신비롭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고 노래한 시인처럼, 아이들을 가까이 보는 것을 제일로 여기는 이가 있다. 아이들 사이로 햇살처럼 넉넉히 스며드는 류제일(62) 교장이다.

하루 종일 곁에서 봐야 아이들 이해

그가 걸어온 교육의 길은 교실에 머물지 않았다. 수줍음 많은 아이들과 함께 땀 흘리며 운동장을 뛰었다. 축구골대가 출렁 대면 서로 손바닥을 마주치며 파이팅을 외쳤다. 학교 밖 개울가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 고추장을 풀어 어죽을 끓였다. 관심 받는 일이 익숙지 않던 시골 아이들에게 류제일 선생님은 특별한 존재였다.

“교사는 하루 종일 아이들과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무얼 하며 노는지, 기분은 어떤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아이들 곁에 있어야 알 수 있지요. 그래야 아이 한 명 한 명이 눈에 들어오고 각각의 특성을 읽을 수 있으니까요. 교육은 결국 개별적인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류제일 교장에게 교육은 학생들을 변화시켜 한 단계 성장시키는 일이다. 성장은 당장 눈에 나타날 수도 있으나, 먼 훗날 삶의 어느 구비에서 솟구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의 성장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노력을 다해야 한다.

교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변화를 지레 예단하는 일이다. ‘올해 맡은 아이들은 별로야’라고 단정 지으면 이미 실패한 교육이 되고 만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학생들과 하루 종일 함께 하다보면 교사의 인간적인 매력이 학생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교사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 학생들의 변화와 성숙을 방해하는 불행한 일이 없어야 하지요. 교사 자신의 인성이 충만해야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올해 스승의 날엔 이미 중년에 접어든 옛 제자들이 찾아와 류제일 선생님과의 추억을 되새겼다. 제자들은 “저희와 함께 도시락을 먹고, 공을 차고, 어죽도 끓여먹으며 동고동락 해주



01



02

01 아이들과 더불어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말하는 류제일 교장은 교감으로 재직하던 시절 사라진 특수학급 아동을 단박에 찾아내 가족과 교직원들의 놀라움을 사기도 했다. 평소 아이들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펴온 터라 아이가 잘 다니는 길목과 장소를 알고 있었던 덕분이다.

02 교장실 탁자 위에는 항상 사탕바구니가 놓여있어 누구라도 교장실에 들르면 서너 개씩 사탕을 받아간다. 학생은 물론,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03

신 분은 선생님밖에 없습니다.”며 감사를 전했다. 철부지 어린 아이들로만 알았던 투박한 마음에도 선생님의 진심은 가 닿았던 것이다.

류제일 교장은 1978년 교직에 첫발을 디딘 후로 40년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단 한 차례도 근무연한을 채우지 않은 적이 없다. 어느 학교에서나 5년을 꼭 채워야 근무지를 옮겼다. 더러 교통이 좀 편한 곳이나, 환경이 나은 곳으로 기회를 잡아 자리를 옮기는 동료교사들도 있었으나, 그는 지역특성과 아이들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주어진 시간만큼 충분히 공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관리자가 되기 전까지 28년간 교사로서 한 차례도 학부모의 민원을 받지 않은 비결은 어쩌면 지극한 ‘이해’가 전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인성교육의 바른 길은 ‘사제동행’

류제일 교장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성교육에 주력해 왔다. 학생들이 아버지처럼 그를 따르며 바른 인성을 갖기를 소망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학생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그는 아버지와 같이 학생을 대하겠다는 각오로 인성교육에 매달렸다.

“미래 사회에서는 지식보다 역량이 더 중요합니다. 교과지

식을 단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기관리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공동체역량 등 핵심역량이 필요하지요. 이러한 역량은 바른 인성에서 비롯됩니다.”

그의 인성교육 원칙은 ‘동행’이다. 교사가 학생들과 어울려 함께 체험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시간을 공유하는 일이다. 필요할 때는 일일이 가정 방문을 통해 학부모와 더불어 아이의 장래를 고민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다 정성을 쏟았다. 아이들이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학교가 즐겁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수업시간에 최소한 두 번 이상 노래를 부르거나, 교수·학습에 게임을 도입해 지루할 틈이 없도록 이끌었다.

“교사라면 누가 봐도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과정에서, 교수·학습활동에서, 생활지도에서, 학급경영에서,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표가 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만 학생들이 이를 배우고 신뢰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장차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시킬 밑거름이 바로 지금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04



03 류제일 교장이 교정을 거닐자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몰려와 손을 잡는다. 밝은 웃음소리에 파묻힌 류 교장의 모습이 환하다.

04 “우리 교장선생님 최고”라며 아이들이 꼭꼭 눌러쓴 편지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류제일 교장은 교사 출신 학교장으로서 ‘교사들의 자율성’을 경영원리로 삼고 있다. 그 자신이 교사로 일할 때 교사의 자율성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과 강력한 에너지를 동반하는지 느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설계부터 특색활동 운영까지 교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교사들이 고민하고 협의하여 제안한 내용이면 백 가지 가운데 아흔아홉 가지는 충청도 말로 “그류~” 한마디면 그만이다.

“학교는 학생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 활동을 지원하는 교무실·행정실·급식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와야 합니다. 교직원들이 화합하고 즐거워야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류 교장은 행정직원들이 교사의 업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 업무협의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했다. 교사와 행정직원 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해 교육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한 급식실 직원들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직원행사에 모두 참여시켜 소속감을 높이고 유대를 강화했다.

학교장이 되어 ‘학생이 즐거운 학교, 교사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학교, 직원이 화합하는 학교’를 만들어가는 일은 큰 보람이지만,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다. 경영자가 되고나니 아이들을 직접 대면할 기회가 적어졌다는 점이다.

류제일 교장은 한 달에 한 번 강당에서 애국조회를 연다. 3~6학년까지 22개 학급 학생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노래도 하고 칭찬도 나누는 자리이다. 각 반에서 무작위로 한 명씩 연단 위에 세워 노래경연을 펼치고 류 교장이 직접 준비한 작은 상금도 나누어준다. 친구들의 노래솜씨도 만끽할 뿐더러 뜻밖에 상금을 받는 황재도 있으니 아이들에겐 조회시간이 여간 기다려지지 않는다.

아이들과 울고 웃는 가운데 어느덧 오는 8월 말이면 그는 정년퇴임을 맞는다. 짧지 않은 시간을 반추하니 명치끝에 걸리는 이름이 있다. 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중학교 진학을 포기했던 아이이다. 그는 가정까지 찾아가 진학을 권유해 보았으나 서울로 남의 집 살이를 보내줬노라던 부모를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었다. 그때 중학교 입학금만이라도 만들어주지 못한 것이 후회로 남는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앞에서는 칭찬받지만 뒤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모범이 되어야 할 선생님의 뒷모습이 학생에게 귀감이 되지 않는다면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겠지요. 지금껏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실천할 것입니다.”

취재진을 배웅하며 돌아서는 류제일 교장의 등 뒤로 봄햇살이 눈부시다. ㉠

임성숙 수석교사의 '과학과 전시장 수업'

전시장 부스 체험하며 서로 배우는 교실

임성숙 경기 망포중학교 수석교사는 과학과 수업에 전시장 수업 모형을 활용해 2년째 교실수업에 적용하고 있다. 전시관이나 박물관의 전시물 체험을 수업으로 옮겨온 것으로 전시물을 통해 체험한 것을 오래도록 기억한다는 데 착안한 수업 모형이다. 모듈별로 소주제를 정해 학생들 스스로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부스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흥미진진하다.

망포중(교장 장성순) 1학년 과학시간. 지구계와 지권의 변화에 대한 수업이 한창이다. 어느 수업과 다른 점은 학생들이 준비한 3가지 주제의 수업과 체험이 과학실 곳곳에서 동시에 이뤄진다는 점이다. 가르치는 과정에서 배운다. 게다가 체험이 결합되면서 수업효과는 배가된다.

첫 번째 전시장 '지구의 내부구조'

지구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다면,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직접 땅을 파서 알아보는 '시추'와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지구 내부 물질을 조사하는 '화산 분출물 조사'가 있습니다. 지구 내부는 약 6400km 정도인데, 우리 인간은 최대 30km밖에 뚫지 못하기 때문에 시추는 불가능합니다. 화산분출물조사도 실질적인 지구 내부의 땅덩어리가 분출되지 않는 이상은 불확실합니다.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구내부를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지진파가 있습니다. 지진파는 통과하는 물체의 상태에 따라 진행 방향이나 속도가 바뀐다고 배웠죠. 오늘의 핵심단어니까 지진파는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지구 내부의 급격한 변동에 의해 땅이 흔들리는 것을 지진이라고 합니다. 지진파는 지진이 발생할 때 사방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말하는데, P파와 S파가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데, 직접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모듬에서는 지구의 내부구조에 대한 강의 준비와 P파 S파 실험, 지구내부모형 만들기를 준비했다. 강의 중간, 수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직접 실험도구를 이용해 P파, S파를 보여주고 지진이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전시장 '대륙이동설에서 판구조론'

대륙이동설은 과거에는 하나로 모여 있던 대륙이 서서히 분리되고 멀어지면서 오늘과 같은 대륙분포를 이루었다는 독일 베게너의 학설입니다. 거대한 대륙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못했지만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해안선 모양이 일치하는 모습이나 빙하의 이동흔적과 분포가 일치하는 점 등 아래 지도를 보면 대륙이동설의 증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구조론은 대륙이동설, 맨틀대류설, 해저확장설을 종합하여 지구의 표면이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각각의 판은 맨틀 대류를 따라 움직이면서 지각변동을 일으킵니다.

2모듬에서는 대륙이동설에서 판구조론에 대한 수업을 준비했다. 대륙이동설이란 무엇인지, 어떤 근거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지진과 화산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으로 판구조

- 01 임성숙 수석교사는 오감을 이용해 학생들이 과학을 서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전시장 수업을 하고 있다. 지구의 내부구조에 대해 발표를 준비한 1모듬의 강의 자료와 체험용 지구내용모형
- 02 일반 건축물과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을 서로 비교하는 학생들. 건축물 중심에 엘리베이터 통로와 삼각형 구조 보강재가 설치된 건축물은 지진에도 흔들림이 적다는 것을 지진실험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 03 한 학생이 지진 발생 시 대피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 04 지진파에 대해 설명하던 학생들이 P파와 S파의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 바닥에서 지진파 실험을 하고 있다.
- 05 체험 부스를 방문한 학생들이 발표자의 설명을 들으며 활동지를 작성하고 있다.
- 06 임 수석교사는 경기도 과학 수석교사들의 모임인 신나는 과학수업연구회 회장이기도 하다. 신나는과학수업연구회에서 제작한 실험자료집들.
- 07 쉽고 재미있게 과학을 가르치기 위해 끊임없이 수업에 대해 고민하는 임 수석교사



03

론에 대한 설명을 준비했다. 대륙이동설을 설명하기 위해 입체 대륙이동모형 체험을 준비했으며, 모형제작도를 따라서 중생대 초기, 중기, 신생대 초기, 오늘날의 순서로 대륙의 이동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세 번째 전시장 '화산활동과 지진'

자 여기 두 개의 건축물 모형을 준비했어요. 하나는 그냥 건축물, 다른 하나는 좀 복잡하죠. 내진설계가 되어있는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의 중앙에는 엘리베이터 통로가 있죠. 고층 빌딩을 떠올려보세요. 건물 중앙에 위치한 엘리베이터는 건물의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건물을 같은 강도로 흔들어보면 엘리베이터 통로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는 지진에 대처하는 게임을 해봅시다. '강진의 경우 크게 흔들리는 시간이 5분 이상 지속되니 크게 흔들리더라도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1번,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정도이므로 우선 튼튼한 테이블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꼭 잡고 몸을 피한다.' 2번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모둠에서는 화산과 지진이 어떻게 발생하며,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업을 준비했다. 특히 지진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진이 발생했을 시 안전수칙을 재미있는 게임을 하면서

익힐 수 있었다. 미션을 수행하듯 진행된 게임으로 학생들은 지진대피 안전수칙과 한발 가까워진다.

오감으로 익히는 전시장 수업

부스를 찾은 학생들의 기습 질문에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한 꼼꼼한 자료와 체험하는데 막힘이 생기지 않도록 임성숙 교사와 사전 시연을 마친 학생들의 수업은

인상적이었다. 학생들도 수업을 경청하며 미리 받은 활동지를 작성하며 부스 체험을 이어나갔다.

김가연 학생은 "모둠원들이 함께 발표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친구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야하기 때문에 실험준비도 철저하게 이뤄진다."고 소개한다. 또 "친구의 설명을 들으면 이해도 잘되고 실험도 쉽게 이해된다. 비슷한 눈높이에서 설명해서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다."고 말한다.

김주은 학생은 "지구의 내부구조에 대해서 5, 6모둠을 대상으로 발표수업을 진행했는데, 첫 발표는 시간안배를 잘못해서 준비한 것을 모두 설명하지 못해 무척 아쉬웠다."며 "두 번째 발표할 때는 여유를 갖고 발표도 진행하고 준비한 실험도 마



04



05

칠 수 있었다."고 말한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두 모둠에서 수업을 준비하며, 학생들은 2차시에 걸쳐 3가지 주제의 수업을 듣는다. 다음 차시의 발표 모둠은 이날 수업에서 미흡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보완하여 보다 완벽한 수업을 준비해야 한다.

"선생님들도 강의를 하다보면, 첫 수업보다는 두 번째 수업, 세 번째 수업이 더 잘되고 수업내용도 풍성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처음 발표할 때는 시행착오도 겪지만 두 번째에서는 더 많은 정보를 주려고 노력하죠. 오감을 이용해서 서로 가르치면서 배우고 함께 나누면서 성장합니다."

15분씩 2회 수업을 끝낸 학생들에게 임성숙 교사는 소주제별로 주요한 내용을 짚어주고, 학생들이 혼동하기 쉬운 내용을 한 번 점검하면서 이날 수업을 마무리했다.

배움이 있는 교실을 고민하는 33년차 수석교사

올해 교직경력 33년차의 임성숙 수석교사는 경기도 과학

[중1] 과학 2-3. 지구계와 자권의 변화

- 1차시 : 전체 단원 살펴보기(선생님과 함께)
- 2차시 : 각 모둠별로 발표자료 만들기
- 3차시 : 1,2,3모둠 부스 운영/ 4,5,6모둠 실험 및 탐구지 작성
- 4차시 : 4,5,6모둠 부스 운영/ 1,2,3모둠 실험 및 탐구지 작성
- 5~6차시 : 소크라티브, 핑퐁을 활용한 형성평가
- 7차시 : 짝 토론을 통한 내용 정리하기

06



07

수석교사들의 모임인 신나는과학수업연구회 회장이기도 하다. 매달 정기모임을 갖고 3가지의 실험을 공유한다는 임 수석교사의 누리집(<http://sungsook1.com>)에는 신나는 과학실험 자료가 넘친다. 그동안 매직사이언스 교사 동호회 고문, 경기 과학실험 자료제작 동호회 회장, 영덕융합교사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원자력아카데미 연구위원, 과학문화진흥회 운영위원, 여성원자력연구회 연구위원, 창의적네트워크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만 20년을 근무했다는 임 수석교사는 학생들의 눈높이가 달라지면서 과학을 흥미 있게 가르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중학교에서 과학을 지도하면서 한 첫 시도는 과학마술이었다. 당시 중급마술자격증을 취득할 만큼 수업변화에 대한 열망도 컸다. 하지만 수업의 본질보다는 과학마술에 더 흥미를 보이는 학생들 때문에 마술수업을 접었다. 이후 과학놀이, 발명교육, 융합교육 등 꾸준히 교과수업에 접목하며 학생 중심의 과학수업을 해오고 있다. 이런 노하우를 한데 모아 4년 전부터 서울대 사범대 학생들에게 교직실무 강의를 해오고 있다. 그동안 수업노하우와 자료를 모아 『과학공작소』, 『눈으로 보는 과학』, 『영어로 즐기는 과학놀이프로그램』, 『교과단원별 발명교육프로그램』 등 다수의 책을 펴내기도 했다.

"누구나 좋은 교사 훌륭한 교사를 꿈꾸죠. 학생들과 소통하고 발전하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33년 아이들을 가르쳐보니 개성 넘치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성장정도가 다르더군요. 전시장 수업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이끌어 내고 싶어요."



01

고창 신림초등학교 '외발자전거 타기'

한 바퀴로 굴러가는 행복, 외발자전거

전북 고창 신림초등학교는 전교생이 34명에 불과한 소규모 농촌학교다. 6년 전 방과후 수업으로 시작한 외발자전거 타기는 이 학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학생들의 체력은 물론, 건전한 생활습관, 학교에 대한 즐거움이 배로 커졌다.



02



03

04

바퀴가 하나뿐인 외발자전거는 중심 잡기가 쉽지 않다.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어른조차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해야 겨우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나름의 기술을 요한다. 그런데 전북 고창 신림초등학교(교장 홍정임)에서는 전교생이 외발자전거 '선수'다. 갓 입학한 1학년부터 만형격인 6학년까지 외발자전거를 능수능란하게 다루고 있다. 뒤로 타기는 기본, 제자리 타기부터 의자 빼서 타기, 줄넘기하며 외발타기 등 묘기를 부리면서도 얼굴은 여유롭다. 흥겨운 노래에 맞춰 요리조리 장애물을 피해 S자로 타는 외발자전거는 마치 흥겨운 공연을 연상케 한다.

전교생 34명의 꿈, 외발자전거

“올해로 외발자전거를 배운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전교생이 배우기 시작해 고학년은 어려운 묘기를 부릴 정도로 성장했지요. 아이들이라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른은 오히려 겁이나 타지 못하는 반면 아이들은 신나고 재미있으니 쉽게 배우고 기술도 빨리 습득해요.”

홍정임 교장은 학생들의 체력을 높이고 학교생활에 즐거움을 주기 위해 외발자전거 타기를 시작했다고 말한다. 더불어 전교생이 34명에 불과한 소규모 농촌학교로서 읍내 학교와 견줘 경쟁력 있는 특화 프로그램도 필요했다. 외발자전거는 희소성과 더불어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 낼 수 있는 장점을 골고루 갖추고 있었다. 물론 고창군 내 20여 개 학교 전교생 대부분이 30~50명 내외로 신림초가 특별히 '작은 학교'인 건 아니지만, 교육 때문에 도시로 나가는 이들을 'U'턴하게 만드는 경쟁력을 하나씩 늘려야 한다는 판단도 한몫했다.

2012년 여름방학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외발자전거를

01 지도교사인 안광진 교사(맨 왼쪽)와 신림초 학생들
02 홀라후프를 이용한 묘기
03 04 신림초는 전교생 34명 모두 외발자전거를 배운다

시작한 후 외발자전거 타기는 이제 신림초의 대표 교육프로그램이 됐다. 류제삼 지도교사 이후로 김미진 교사를 거쳐 지난해부터는 안광진 교사가 직접 지도하고 있다. 아이들은 주 1회 방과후 수업(1학년 외발교실, 2학년 외발교실, 3·4학년 외발교실, 5·6학년 외발교실)에 참여하고,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외발자전거를 타며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다. 한 종목을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면서 “신림초에 가면 외발을 탄다.”는 입소문도 자연스럽게 퍼졌다. 면단위 소재 학교라 학생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귀촌·귀농하는 가족의 자녀들도 하나 둘 입학하고 있다.

교사들의 열정으로 6년째 시행 중

“학생들이 균형감과 민첩성, 집중력을 바탕으로 수없이 넘어지며 성공하는 경험을 통해 끈기와 인내력을 기르고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생활을 즐거워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까요. 눈에 띄게 학생들 얼굴이 밝고 활기차졌습니다. 한 번 배워두면 취미·특기도 되고, 생활체육으로도 손색이 없죠.”

김미진 방과후학교 부장교사는 부임 후 5년째 아이들과 함께 외발자전거 타기를 실천하고 있다. 스스로도 스포츠를 즐겼기 때문에 지도교사로 업무를 맡았을 때도 즐겁게 임했다고. 다만, 예산을 들여 초보부터 배울 수 있도록 25대 외발자전거를 구비하고, 다목적실에는 안전 바를 설치하는 등 환경은 조성했지만 지도강사를 구하긴 쉽지 않았다. 작은 시골까

지 외발자전거를 가르쳐줄 전문 강사가 없어 직접 인터넷에서 찾고 배우며 아이들을 지도해야 했다. 때문에 전 교사가 보조교사로 함께 지도를 도와야야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었다.

“외발자전거를 잘 탈 줄 아는 건 아이들뿐입니다(웃음). 함께 배우고 있지만 아이들이 더 잘 타고 있어요. 지도교사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하고 싶은 열정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있어요.”

지난해부터 외발자전거 타기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안광진 교사의 말이다. 1·2학년은 기본 타기를 연습한다면, 3·6학년은 제자리타기, 함께 타기 등 다양한 기술을 습득한다. 특히,

1m 50cm 높이의 기린자전거를 탈 줄 아는 아이들도 고학년 중에 몇몇이 포진돼 있다.

이를 통해 해마다 학기 말이 되면 외발자전거 공연도 펼치고 있다. 학부모뿐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묘기를 부려 얼마 전부터는 공연 초청도 종종 들어올 정도다. 김미진 부장교사는 앞으로 학교 밖 활동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올해는 학생들이 배운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요양원 등에서 봉사활동 공연을 하고, 다양한 지역축제 무대에도 설 계획입니다. 외발마라톤 등 이색 교내대회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의 활동을 넓혀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외발자전거 타기 1등 공신! 엄마-아빠 선생님

신림초 외발자전거 타기는 '엄마-아빠 선생님'의 애정과 열정의 산물이다. 지도 담당교사를 도와 전 교사가 보조교사로 나서며 아이들을 옆에서 잡아주고 챙겨주고 가르쳐준다. 지난 6년 동안 시골 마을까지 내려와 지도해 준 전문강사가 거의 없었음에도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때문이다. 그래서 외발자전거 타기를 “교사가 꼭 탈 수 없어도 충분히 지도할 수 있다.”고 이들은 단언한다. 전 교사의 애정 어린 시선과 노력, 마음가짐은 외발자전거 타기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이자 지도 노하우 일 터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하영지 교사(1학년 담임) “아이들을 보면서 능력이 무궁무진하다고 느껴요. 글썄요. 제가 한 건 옆에서 지켜봐주고 긍정해주는 일이었어요. 비록 제가 가르쳐 줄 순 없어도 ‘잘한다.’ ‘늘었네.’라고 얘기해주고 항상 바라봐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요.”

진지민 교사(3학년 담임) “기술을 배우면 아이들이 자랑스러워 해요. 인터넷 게임 등을 즐기기보다 외발자전거를 타고... 교실에서도 애깃거리가 외발자전거가 됐어요. 건전한 생활습관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함께 지도하고 있지요.”

최진 교사(4학년 담임) “학교 밖에서 펼치는 공연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는 마을과 함께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800평 텃밭에서 기른 작물을 판 수익금으로 기부를 하면서 외발자전거 공연으로 재능기부를 실천하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어요.”

5학년 담임이자 지도교사인 안광진 교사는 ‘사제동행 공연’을 생각 중이다. “외발자전거 타기를 함께 배우고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연습하고 기술을 익혀서 공연무대에 함께 서고 싶습니다.”



왼쪽부터 하영지 교사, 최진 교사, 오준록 교감, 진지민 교사, 김진실 교사, 강은숙 교무부장교사, 홍정임 교장, 김미진 방과후부장교사, 안광진 지도교사

외발자전거 스타

노이주 양은 2학년 때부터 시작해 빠르게 기술을 습득했다. 3년간 뒤로 타기, 아이들링, 안장 위에 올라타기 등도 능숙하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노 양은 “외발자전거 타기를 처음으로 성공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배우는 과정은 힘들어도 막상 성공하고 나면 쉽고 재밌다.”고 말한다. 옆에서 지켜봐준 선생님을 보면서 사제 간 정도 돈독해졌다. 무섭고 두려울 때 든든하게 옆을 지켜준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은 더욱 커졌다.

“옆에서 손을 잡아준 선생님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이제는 저도 잘 탈 수 있게 됐어요. 외발자전거는 중심 잡는 게 어려워도 노력하면 누구나 잘 탈 수 있어요.”

6학년 유경학 군은 올해로 외발자전거를 탄 지 3년째다. 방과후 수업 시간 틈틈이 배운 기술로 뒤로 가기는 물론 몇 명만 성공한 기린자전거까지 마스터했다. 유 군은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가 가장 뿌듯하다.”며 “공연무대에 자주 서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한다. 이제는 학교가 가장 즐거운 곳이 됐다는 유 군. 외발자전거 기술을 뽐낼 때는 누구보다 자신만만한 모습이다.

“제자리에 서있기 기술인 아이들링을 익히고 있어요. 조만간 성공해서 더 멋진 외발타기를 보여주고 싶어요.”



노이주(5학년)

유경학(6학년)

박병찬 강원명진학교 교사

어느날 찾아온 실명...

포기 없는 삶의 증거가 되다



공강시간, 박병찬(46.시각장애 1급) 강원명진학교 교사는 손끝을 따라 열심히 교과서를 읽어 내려간다. 1장에서부터 마지막장까지 암기하고 있지만, 혹시 잊었거나 막히는 곳은 없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한다. 박 교사는 늘 가르칠 내용을 모두 머릿속에 암기하고 수업에 들어간다. 교실에 들어서서는 머릿속으로 학생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좌표를 그려 학생의 이름과 이미지를 새겨 넣는다.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수업내용을 순조롭게 이해하는지, 수업시간에 조는 학생은 없는지, 학생들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수업을 이어나간다.

10대 고등부 학생부터 60대의 전공과 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가르치는 그는 다소 엄격한 선생님으로 통한다. 하지만 교실 밖에서는 누구보다 따뜻하게 마음을 보듬어주는 선생님이다. 2002년부터 강원명진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박병찬 교사는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중도 실명 학생들을 상담하고 시각장애 학생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다.

세상의 편견에 당당히 맞서다

24년 전, 미래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던 20대 초반의 평범한 한 대학생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박병준 학생에게 '망막색소변성증'이 찾아왔다.

“버스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 내리는 데 눈앞이 흐려지며 앞이 보이지 않았다.”는 박 교사는 그렇게 세상의 빛을 잃었다. 이런 상황을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겨우 버스에서 내려 기억을 더듬으며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를 탔는데, 이번엔 이유를 모른 채 택시

01

기사의 향의를 들어야 했다. 택시가 길게 늘어선 승강장의 중앙에서 택시를 탔던 것. 우여곡절 끝에 가족에게 연락하고 공중전화 부스에서 기다리던 1시간이 마치 한 달처럼 길게 느껴졌다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는 박병찬 교사. 그에게는 잊지 못할 고마운 친구가 있다. 갑작스레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그를 위해 친구는 군입대를 미루고 꼬박 1년을 곁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왔다. “포기하지 말라”는 친구의 한 마디에 용기를 얻어 점자를 배우고 새롭게 특수교사의 꿈도 키울 수 있었다. 24살 나이에 시각장애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서울맹학교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그는 수능 준비를 하며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다.

“맹학교 선생님들조차 모두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말렸어요. 중도장애인은 점자 읽는 것이 느려서 수능을 볼 수가 없다고요. 하지만 특수교사를 향한 꿈은 포기할 수가 없었죠.”

그가 걸어온 길은 세상의 편견과 싸워온 시간이기도 하다.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모의고사를 보다가 쓰러진 적도 있다. 수학을 암산으로만 풀다보니 쉽지는 않았던 시간이었다. 수능을 준비하는 시각장애인의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그해 처음으로 수능시험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 서비스가 도입됐다. 그렇게 두 번째 대학생이 되면서 특수교사의 꿈에 한발 다가갈 수 있었다.

그가 걸어온 길은 세상의 편견과 싸워온 시간이기도 하다.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모의고사를 보다가 쓰러진 적도 있다. 수학을 암산으로만 풀다보니 쉽지는 않았던 시간이었다. 수능을 준비하는 시각장애인의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그해 처음으로 수능시험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 서비스가 도입됐다. 그렇게 두 번째 대학생이 되면서 특수교사의 꿈에 한발 다가갈 수 있었다.

장애학생들의 재활의 길 돕는다

강원명진학교는 유·초등부부터 중학부, 고등부, 전공과를 갖춘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로 현재 100여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박병찬 교사는 고등부, 전공과 학생들의 침술,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직업교육을 담당하며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치매나 중풍으로 고생



02

01 박병찬 교사가 중도 실명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특수교사가 되기까지 그가 걸어온 발자취는 제자들에게 이정표가 되었다. 성실함이 몸에 밴 그는 매일 아침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02 박 교사는 강원명진학교에서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안마 등의 직업교육을 가르친다.

하는 어르신을 위해 안마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가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사명감이 있는 그런 선생님이요.”

강원명진학교의 학생들 중에는 선천적 장애를 가진 학생도 있지만 박 교사처럼 평범한 삶을 살다 시력을 잃고 중도장애인이 된 경우도 많다. 중도장애인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박 교사는 학생들에게 “포기하지 말아라. 꿈을 갖고 도전하면 장애를 넘어설 수 있다.”고 말해준다.

특수교사가 된 후에도 그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시각장애 학생들의 이상행동과 불안증상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체계적인 상담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대학원에 진학하여 상담을 공부했다. 1급 전문교사상담자격증을 취득한 그는 학생들의 상담, 생활지도 등을 통해 심리적 불안과 갈등을 잘 극복하고 재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현재 강원대 철학과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자신의 존재가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새로운 시도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박 교사. 봉사하는 과정에서 만난 한 선생님으로부터 클라리넷 운지법을 배웠다는 그는 동료교사들이 녹음해준 악보를 들으며 매일 아침 클라리넷을 연주한다. 박 교사의 발자취가 곧 그의 제자들에게 이정표인 셈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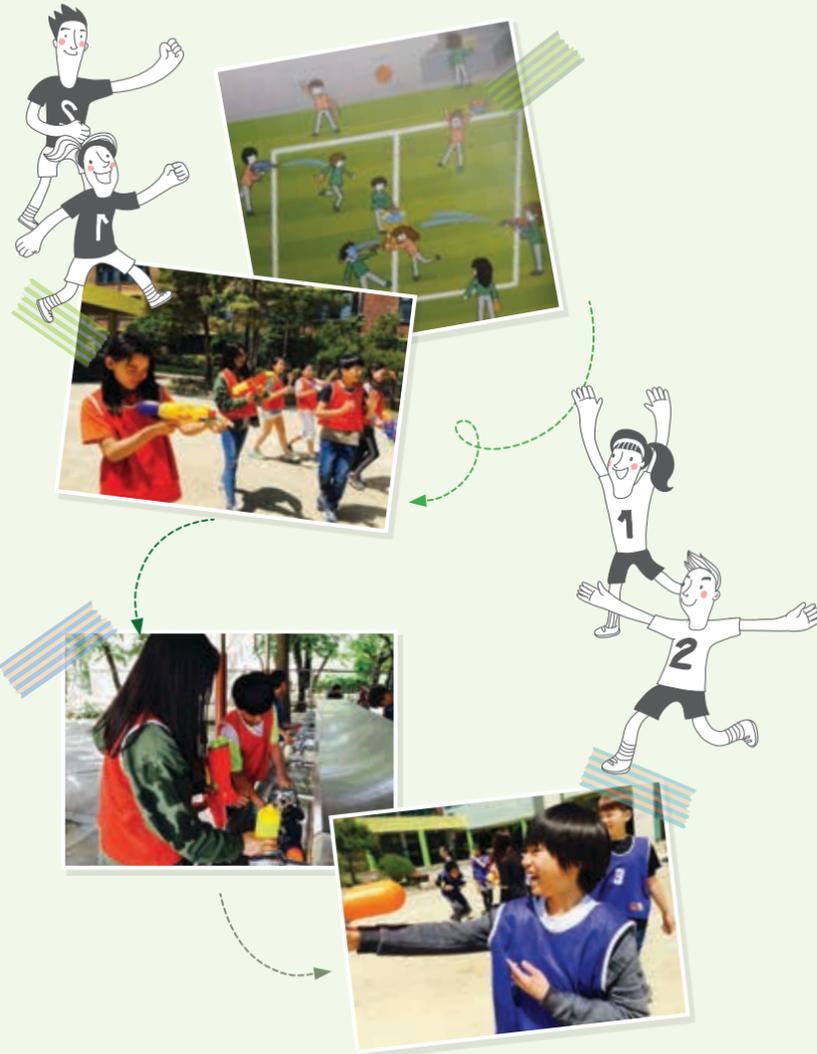
한여름의 무더위를 날리는 놀이 피구의 스릴과 물놀이를 결합한 '물총피구'

이런 때 활용하면 좋아요

6월에 들어서면서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그러나 어른들과 다르게 학생들은 더위도 운동장에 나가고 싶어 하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안전한 물놀이! 무더위가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물놀이를 유도할 수 있는 물총피구는 어떨까요? 일부 학생들이 옷이 젖는 것이 싫어 참여하기를 주저할 때도 하기 좋은 놀이입니다 (비옷을 준비하셔도 됩니다).

놀이 방법을 알아봐요

- ① 이 놀이는 일반 피구 경기와 같습니다. 두 팀으로 나누고 적절하게 공격수(안쪽)와 수비수(바깥쪽)를 정합니다. 경기장 중앙에 물이 들어있는 큰 대야를 놓습니다. 바깥쪽에도 놓는 게 좋습니다.
- ② 각 팀에서 1명을 제외한 모든 수비수는 물총을 들고 상대팀 공격수에게 물총을 쏘서 공을 잡거나 던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수비수 중에서 물총을 들고 있지 않은 1명만 공을 던져 상대팀을 공격할 수 있고 물총을 들고 있는 수비수가 공을 잡는 경우에는 패스만 가능하고 공격은 불가능 합니다.
- ③ 수비수 물총의 물이 떨어지면 근처 수돗가나 물총 피구를 위해 물을 모아둔 곳에 가서 물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공격수도 물총으로 상대팀을 쏠 수 있고 물총의 물이 떨어지면 가운데 대야에서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만약 공격수가 들고 있는 물총으로 상대의 공격을 막았다면 물총이 아웃되어 놀이가 끝날 때까지 물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④ 공격수가 아웃되면 수비수가 들어오며 모든 공격수가 먼저 아웃되는 팀이 지게 됩니다. 나머지는 피구방식과 같습니다.



이런 효과가 있어요

- ① 피구를 변형한 놀이입니다. 기존의 피구 방식에 변화를 살짝 주면 아이들은 새로운 놀이로 인식하게 됩니다. 무더위도 날리고 재미도 얻을 수 있습니다.
- ② 이 놀이의 핵심은 팀워크입니다. 협동심을 키워서 단결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협동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 ③ 피구를 하다보면 실력이 부족한 친구는 참여가 부족하게 되는데, 이 놀이는 물총을 사용하기 때문에 누구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6~7월에 하는 이유

- ① 6월에 들어서면서 날씨가 많이 더워집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적절하게 재구성하여 신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어떨까요? 단순히 물총으로 싸우는 놀이보다 피구와 결합하여 진행하면 훨씬 더 흥미진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구가 끝나고 살짝 물총 싸움을 하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2

응용해 보세요!

99초간의 무비

- ① 팀모듬 대항전으로 하는 놀이로, 99초의 시간동안 모든 미션을 완수하는 놀이입니다. 그 과정은 교사가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찍습니다. 학부모들과 공유해도 반응이 참 좋습니다.
- ② 총4단계로 구성합니다. 단계와 시간은 학급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이 적절하게 조정하면 됩니다.
 - [1단계] 단체 점프 사진 찍기: 모듬원 중 한 명은 사진을 찍고 나머지 친구들은 점프를 뛰어 공중에서 찍으면 성공~
 - [2단계] 차례대로 제기차기: 모듬원이 차례대로 제기차기를 하는 미션으로, 횟수는 적당히 정해주세요
 - [3단계] 단체 줄넘기 10회 뛰기
 - [4단계] 고리던지기: 5회 도전하여 1회 이상 성공하기
- ③ 이때, 중간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저학년은 그 단계만 다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④ 정해진 시간동안 모든 미션을 완수하면 놀이는 종료됩니다. 각 단계의 미션은 선생님이 적절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훌라후프 돌리기, 투호 등 다양한 미션으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가 있어요

- ① 제한 시간동안 미션을 완수하는 것은 스릴감과 달성했을 시 성취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위를 날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 ② 나의 성공이 아닌 우리 모듬의 성공이 필요한 놀이이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대구 인문학 책쓰기 교사 지원단

인문학? 책쓰기? 어렵지 않아요!

대구광역시교육청은 2009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 책쓰기 교육을 시작했다. 단순한 글쓰기에 지루함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책쓰기는 신선한 충격이었고, 반응도 괜찮았다. 야심차게 시작한 '학생저자 100만 명 양성'을 위한 책쓰기는 손조롭게 정착하나 싶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변화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만들려면 뒤따라오는 사람을 위한 길잡이가 필요했다. 그리하여 대구시교육청은 책쓰기를 어려워하는 학교 현장에 도움을 줄 사람들을 찾았다. 바로 자발적으로 책쓰기 교육을 시작하고 책쓰기의 즐거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책쓰기 전도사, 인문학 책쓰기 지원단이었다.

지원단 교사들은 우연히 책쓰기를 알게 되어 자발적으로 시작했다. "글을 써보자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아이들이 '책쓰기 해보자' 하니까 호기심에 눈을 반짝이더라고요. 일단 관심을 끌었으니 됐다 하고 무작정 책쓰기 동아리를 시작했죠." 그리하여 아이들과 함께 책을 엮어내고 그 책이 몇 권 쌓이기 시작할 때쯤 대구 전역으로 책쓰기가 퍼져나갔다. 책쓰기를 실천하던 교사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책쓰기 특별연구교사모임으로 운영되다 2012년 초·중등 교사 40여 명 규모의 인문학 책쓰기 지원단이 결성되었다.

"인문학과 책쓰기에 생소함과 두려움, 거부감이 있는 학교 현장에 인식의 전환을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책쓰기를 통해 삶을 의미 있게 구성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태도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책쓰기의 좋은 점이 많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막연히 책쓰기가 어렵다는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었어요." 지원단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정 대구수성초 교사는 출발은 '꿈을 찾는 책쓰기' 카페였다며 연구회의 시작을 알려주었다. 그에 따르면 초기



에 책쓰기를 시작한 학교의 선생님들끼리 카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방법을 고민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구회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타 지역에서도 대구의 책쓰기 교육을 벤치마킹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대구에서 책쓰기를 많이 하는 선생님들에게 강연 요청이 쇄도하여 올해도 대전, 부산 등 여러 지역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하였다. 이외에도 지원단은 일 년에 한 번 있는 전국 학생 책쓰기 축제 기간 동안 행사 준비와 진행을 돕고 외지의 손님에게 편안한 숙식을 제공하는 등 책쓰기 교육의 결과 나누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작년부터는 다문화 책쓰기 축제로 운영하여 다문화 가정에도 인문학 책쓰기 교육을 알려주려 노력하고 있다.

"진짜로 지원단 선생님들이 안 계셨으면 대구의 책쓰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뿌리내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미안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교육청의 담당 장학관은 책쓰기 교육 성공의 공을 모두 지원단 교사들에게 돌렸다.

올해도 전국적인 책쓰기 열풍은 식을 줄을 모른다. 대구는 올해 '100-100-1' 프로젝트를 통해 전 생애를 통한 100권의 독서, 100번의 토론, 1권의 책쓰기를 실천하려 노력 중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시 인문학 책쓰기 지원단이 있다. ②

글 김민중 명예기자(대구다사초 교사)

- ② 지역 : 대구
- ③ 대상 : 책쓰기에 관심 있는 초·중등 교사
- ④ 대표 : 이현정 대구수성초 교사

행복수업연구회

대한민국 '행복수업'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웃음 가득 행복수업의 달인이 모였다. 본 연구회는 2011년에 손혜진 회장을 주축으로, 5명의 교사가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라는 점에 공감하고 연구회를 조직하였다. 같은 해,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실시한 '행복수업시범학교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7년째, 행복교육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의 선생님들로 '행복수업연구회' 동아리가 자생적으로 구성되었다. 회원 수는 총 55명이며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명이다. 연구위원 대부분은 '행복수업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행복수업의 달인이다.

본 연구회는 7년의 활동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1년에는 행복수업 시범학교 운영(함흥중학교, 2, 3학년)을 통하여 행복수업의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2012~2013년에 경기도교육청 'NTP 행복교과서 연수원 학교'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이 공로로 연수원학교 운영 최우수표창(교육감)을 수상하였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수 활동 실시하고 행복수업 교사 모임을 확산하였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행복을 가르치는 교사 사단법인'의 발족과 더불어 연구회가 전국적인 네트워크 기반을 다졌으며,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행복수업연구회 활동을 승인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행복수업연구회는 2017년 운영은 준비, 실천, 평가 단계로 나누어 운영하며 각 단계별로 주요 활동을 연구위원들이 협의를 통하여 정한 후, 실천한다고 한다. 손혜진 회장은 전국 단위의 연구회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매월 1회 이상 정기모임을 갖고 활발한 나눔과



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학교 현장, 선생님들께서 '행복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 항상 감사한 마음이며 행복교육이 전국에 확산·정착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행복수업연구회 손혜진 회장과 의 일문일답이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A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았다. 행복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었다. 당시의 제자들이 찾아와 "선생님, 사퇴인 되고 보니, 행복수업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했었다. 감동있었고 기억에 남는다.

Q 연구회의 비전은? A 비전은 '행복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이다. 행복수업의 향하는 계속한다. 나의 목표는 이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다.

Q 2017년 노력 중점은? A 교원의 행복수업 연수 참여 기회 확대·제공하고 학부모연수를 대상으로 행복교육을 실시하며 행복수업사례 나눔으로 확산, 심화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7년 노하우, '행복수업' 자료는 여기에

행복교과서 프로젝트 <http://cafe.daum.net/happinessbook4u>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www.snuhappiness.kr

글 박성규 명예기자(퇴임 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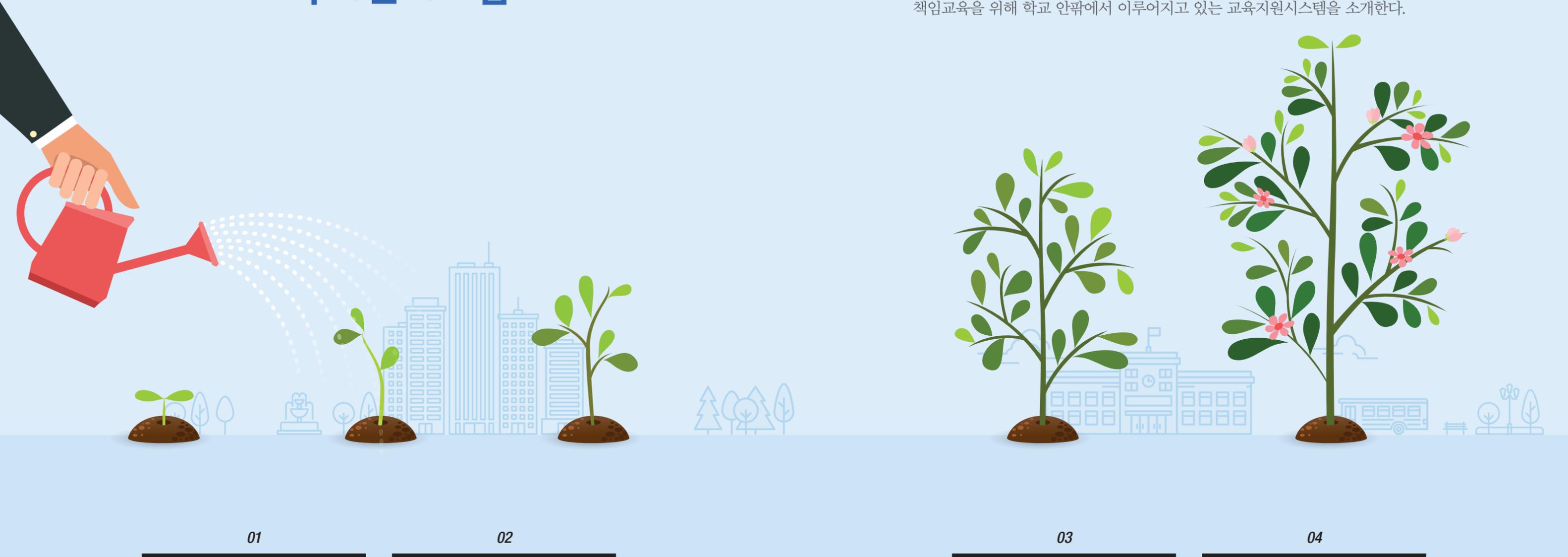
③ 대상 : 전국 초·중·고 교사

④ 대표 : 손혜진 시흥 송운중 교사(070-7016-3900)

기획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지원시스템

가정에서의 문제, 교우와의 불편함, 게임 중독,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있다.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없고, 의미 없이 태어난 존재는 없다. 학습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는 부진의 원인을 진단하여 배움의 기회를 주고,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대안교실 등을 통해 무기력을 이겨내고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한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위해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지원시스템을 소개한다.



01

‘한 사람’을 아끼는 교육

02

교육에 소외되는 이 없는 세상을 만든다

03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품은 ‘대안교실’

04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시스템

‘한 사람’을 아끼는 교육

글 류성창 국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으로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만큼 인간의 가장
고귀하고 근본적인 부분을 다루는 일을 하게 된다.’



‘병든 자들만을 위한 직업이나, 분쟁과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직업들이 흔히 주목을 받는 세상이다. 하지만, 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으로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만큼 인간의 가장 고귀하고 근본적인 부분을 다루는 일을 하게 된다.’

마치 새끼오리에게 어미가 각인되듯,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은 늘 그렇게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일까? 교육학과 학부생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하던 시절 어느 명강연자의 말을 나는 지금까지도 종종 되새기곤 한다.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받게 되는 ‘교육,’ 인간으로서 영위할 수 있는 직업 중에 가장 고귀한 직업분야로서의 ‘교육’에 대한 자각은 아직까지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나 각종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동기의 원천이 되어 준다.

그러나 가끔 우리의 교육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교육을 바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어느 학교에서는 상위 몇 프로의 학생들만 모아서 자율학습을 시킨다던지, 몇 프로의 학생들만 따라와 주면 된다던지 하는 말들을 듣고 있노라면 우리는 과연 교육다운 교육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재고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각종 교육정책이 그 순수하고 좋은 의도를 도외시한 채 현장에서는 일부의 학생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그 목적이 왜곡되어 실현되는 현상을 들여다보는 일도 상당히 괴로운데 그 이유 역시 교육답지 않은 교육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기인하는 듯하다.

학교와 멀어지는 학생들, 근원적 문제에 질문을

가정에서의 문제, 교우와의 불편함, 게임 중독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 현장에서 멀어져 있는 학생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발견하게 된다. 학업중단예방컨설팅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을 지난 3년 동안 방문해 본 경험을 반추해 보면, 분명히 거의 모든 학교에 학교로부터 벗어나 있거나 벗어날 위기에 있는 학생들이 있고, 현장의 선생님들도 그러한 학생들을 위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며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알게 된다. 특히, 학교에서 벗어나면 어린 나이에 사회의 밝지 못한 부분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있어서 각 학교의 리더십과 교사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노력들은 가끔 컨설팅차 방문하는 외부

위원들에게 감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경우들도 있었다. 동시에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을가에 대한 점이다. 교육과 사회 전체의 시스템이 경쟁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 교육의 내용과 평가 방법이 객관화되어 있고 균일하게 적용되는 한, 우리교육은 경쟁에서 유리한 일부의 학생들과 유리하지 못한 또 다른 일부의 학생들을 분리해 내는 악역을 담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학생들은 다양한 개인적인 사유로 학교와 멀어지는 듯하지만, 어떠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학교에 오더라도, 자신의 관심사와 아무 상관이 없거나 자신의 능력에 맞지도 않는 어려운 내용의 수업을 장시간 동안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아무 의미 없이 견디도록 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속박이 되므로 학교를 다시 떠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경쟁 중심의 교육, 공존과 상생의 문화로

사실 가정과 관련된 다양한 학교 밖의 사유들을 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학교 밖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일단 학교에 오면 의미 있고 흥미로운 학습활동이 늘 있어, 학교가 안식처가 되고 미래를 위한 진정한 준비의 공간이 되어 줄 수 있는 교육의 시스템적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획일적이고 경쟁 중심의 교육과 사회의 문화를 공존과 상생의 문화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 학교 단위의 자율성을 지금보다 강화하고, 특히 후기중등 교육과정은 완전 선택형으로 풀어주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필요와 수준에 맞는 다양한 과목의 개설이나 수업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교육은 모든 이가 경험하고 그 혜택을 입어야 할 마땅한 인간의 기본 권리이다. 우리교육의 현실 중 이것을 가로막는 부분이 있다면 마땅히 해결하고 개선하여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학교의 틀 안에서 자신을 찾고 개발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교육다운 교육을 실천하는 일은 인간으로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이 되는 것이다. ㉠

두드림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교육에 소외되는 이 없는 세상을 만든다

교육부에서는 학습부진 학생이 많은 학교를 선정하여
두드림학교를 운영, 학생 중심의 다중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서행동장애 등 복합적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부진학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학습부진 학생이 많은 학교를 선정하여 두드림학교를 운영, 학생 중심의 다중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충중학교, 자존감 높이는 징검다리 프로그램

“수학 기초가 부족해 또래 멘토와 수학공부를 함께하고 있어요. 중1 과정부터 차근차근 기초를 밟고 있는데, 지겹던 수학이 재미있어요.” 올해 중3인 민○○ 학생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학습코칭을 받은 후 공부에 흥미를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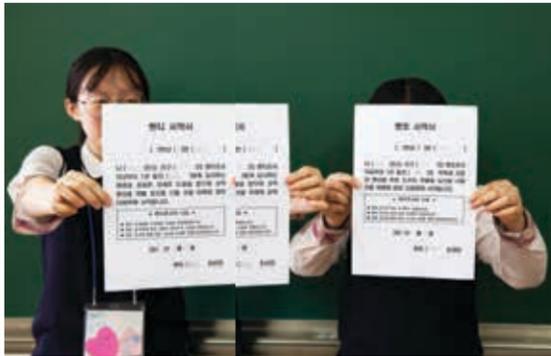
올해 4년째 두드림학교를 운영하는 경기 이충중학교(교장이우탁)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력신장을 위해 징검다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정도로 학생들의 반응이 좋다. 학교는 교육청,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한국학습상담학회, 평택대 미술심리상담원, 도자기공방, 동아방송대 난타공연단 등 지역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습진단 및 코칭은 물론, 스포츠·문화·예술체험을 병행하며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우탁 교장은 “수업을 하다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 위주로 흘러가 수업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긴다. 세심한 배려로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상담실 운영과 징검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학력부진의 원인을 진단하고 학습코칭에 초점을 두고 두드림학교를 운영 중”이라고 소개한다.

방과 후에 요일별로 교사들이 국어·영어·수학·과학·역사과 보충학습을 실시하며, 한국복지대학교 학습클리닉센터의 연구원들이 월2회 학습전략, 시간관리, 학습감정, 코칭 등 학습



이충중 두드림학교 학습코칭



이충중 학생들의 멘토멘티서약서



대구용계초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충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수학여행

목표를 세우고 학습의욕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더불어 스포츠·문화·예술체험을 통해 자존감을 높인다.

프로야구 경기를 보면서 마음껏 소리 지르며 응원하는 아이들은 프로선수의 근성도 함께 배운다. 연극공연을 통해 대중문화와도 가까워지고, 사진 찍기를 통해서 또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운다. 오합지졸로 난타공연을 어떻게 하느냐며 펄쩍 뛰던 아이들은 믿고 기다려주자 끝내 무대 위에서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선생님과 함께 떠나는 캠프를 통해 조금씩 마음을 여는 방법을 익힌다. 이정훈 교사는 “두드림학교를 통해 자존감을 키웠으면 한다.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내면의 힘을 길러주고 싶다.”고 말한다.

대구용계초, 전 교사가 교과지도 교사로 활약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대구용계초(교장 권혜숙)는 전교생 460명 가운데 80% 가량이 맞벌이 가정으로 35%의 학생이 교육복지우선지원 대상이기도 하다. 올해 3년째 두드림학교를 운영 중인 대구용계초는 ‘두드림다중지원팀’을 구축해 기초부진 학생을 판별하고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백정옥 교사는 “학습부진 원인을 규명하는 데 최우선 순위

를 두고 있으며, 다각적인 진단 검사, 학습·정서적 측면에서 담임관찰, 학부모협의, 학생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지원 대책을 협의하고 9개 영역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생참여도, 만족도, 기초학력 향상도를 높이고 있다.

대구용계초의 ‘두드림다중지원팀’은 부진학생 지도에 전 교사가 참여한다. 때문에 대상학생과 학부모는 교과지도 교사를 선택할 수 있다. 지도방법, 교재는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최적의 자료를 다양하게 투입하여 1대 1 맞춤형 수업으로 이뤄지며, 학습시간도 지도교사와 협의하여 조율할 수 있다. 특히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도받음으로써 교사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심리적인 안정이 이뤄져 효과가 높다. 지난해 8.2%였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7년 3월에는 2.2% 감소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충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학교부적응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은둔생활을 하던 지훈(가명) 군은 보호관찰소 집단 상담을 통해 충남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인연을 맺었다. 무기력한 생활을 이어가던 지훈 군은 센터에서 친구, 멘토, 선생님과 건강한 관계를 경험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센터의 인턴십, 청소년단, 검정고시 대비반, 문화체험, 직업체험, 수학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거친 후 ‘청소년 인턴십 직장맛보기’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성실하게 인턴도 마쳤다. 지훈 군은 센터를 드나들며 대학진학의 목표가 생겼고 2016년에 높은 성적으로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올해 물리치료학과에 진학해 학업에 정진하고 있다.

이미원 충남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청소년부터 학교를 떠난 후 갈팡질팡하다 친구, 부모님, 선생님, 학교전담경찰관 등의 권유로 찾아오는 학생도 있다. 대학생 멘토를 지원하여 좋은 롤 모델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충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해 멘토링 캠프를 진행,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성산일출봉에서 일출을 보고, 올레길에서 미션을 수행하며 도전과 성장의 시간을 가지며 92명이 평생 잊지 못한 추억을 만들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준비해야하는 청소년을 위해 ‘모의창업캠프’를 열고 있다. ㉔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품은 '대안교실'

“학교에서는 할 게 없어요. 배우는 것도 도움도 안 되고요. 차라리 이 시간에 학교 그만 두고 돈이라도 버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진부고등학교 승준(가명) 군은 학업중단을 선언했다. 학교를 자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 학교 앞에 작은 분식집을 내고 싶다고 했다.

수업시간, 교사의 눈을 피해 거울을 보던 경미(가명)는 아침에 짠 뽀루지가 신경이 쓰였는지 콤팩트를 꺼내 뽀루지 위에 꾀 발랐다.

이경원 교사는 “화장 잘하는데 소질 있어. 수업 끝나고 잠깐 성장교실(대안교실)에서 보자.”고 말을 건넸다. 경미는 공부 못한다. 화장품 이름은 한번만 봐도 줄줄 외워지는데 영어단어나 수학공식은 구분이 안 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외계어 같다. 졸업하려면 1년이 남았지만 참을 수 없어 교실을 뛰쳐나가고 싶을 뿐이다.

세상에 상처받은 아이들 '학교가 싫다'

자신의 이야기를 누구와도 나누지 않고 '무작정 학교가 싫다', '그냥 별점이 쌓여서 자퇴하겠다.'는 극단적인 아이들. 부모의 무관심 속에 오래 방치되어 있던 장기 결석자들에게 징계보다는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무언가가 절실했다.

성장교실에서 승준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 꿈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던 이경원 교사는 “사업자금을 줄 테니 학교 내 분식점을 열어볼 것”을 제안



진부고 성장교실

했다. 경미에게는 “학교 그만둘 생각하지 말고, 메이크업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 친구들을 모아오면 학교에서 메이크업 수업을 듣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동안 인터넷 동영상이나 뷰티프로그램을 보면서 눈 화장이나 코가 높아 보이는 방법, 얼굴이 작아 보이는 화장법을 따라했죠. 그런데 학교에 전문 메이크업 선생님이 오셔서 화장품이나 화장도구 사용법을 알려주었고, 화장 예쁘게 하려면 피부 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경원 교사는 먼저 학생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평소에 하기 어려운 활동들로 학생들의 호기심을 높였다. 승마 개인지도, 바리스타 교육, 국궁교육 등. 그리고 짜여진 활동보다는 그냥 걷거나 농작물을 수확하며 그때그때 아이들의 기분에 맞춰 다양한 활동을 시도했다. 교사는 아이들의 곁에서 변화를 살피고 틈이 생기길 바라며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

학생 한 명 한 명이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 부적응학생, 위기학생 등에 맞춤형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들 얼굴에 표정이 생겼다. 진부고에 '푸짐'이라는 와플 가게가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카페에서는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됐다. 학교 복도와 교실 벽은 미래 인테리어 전문가의 손에 맡겨졌다. 개별 학생들의 변화는 학교 전체로 빠르게 번져나갔다. 이전 성장교실을 중심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전교생이 참여하고 있다.

가출소년, 모델을 꿈꾸다

웅상고등학교 두현(가명)이는 1학년 1학기까지만 해도 착실하게 학교생활을 했다. 엄마의 잔소리에 말다툼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PC방이나 노래방을 가기도 했지만 늦어도 밤 12시 전에는 집에 들어갔다. 그러나 부모님과 사소한 다툼으로 가출을 하게 되면서 학교에도 가지 않았다. 우연을 가장하고 두현이를 찾아나선 과학선생님은 “돈은 있나? 힘들면 말하래이. 학교는 나오나. 집에는 들가고.”라고 말했다.

두현이는 평소 좋아하는 선생님의 몇 마디 말에 두 달간의 가출생활을 접었다. 하지만 수업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웠고 결국 '잠'으로 도망쳤다. 수업시간마다 었려 자는 두현이는 모든 선생님에게 골칫거리였다. 이런 두현이를 이승주 교사는 ‘앉아 듣는 수업이 적다’,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말로 꿈키움교실(대안교실)로 이끌었다. 오전수업 내내 교실에서 자고 오후에는 대안교실에 참여했다. 꿈



웅상고 꿈키움교실 안내자료

임없이 미션을 수행하며 학교 곳곳을 돌아다니다 오후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꿈키움교실 수업은 학교 인근의 지역사회까지 활동범위를 넓혔다. ‘쓰레기 수거’, ‘동네 아이들로부터 고맙다는 말 세 번 듣기’ 등의 미션이 주어졌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애를 도와줬거든요. 근데 개가 다 건너더니 고맙다고 하던데요. 나도 누군 도움 수 있구나, 뿌듯했어요.”

두현이는 친구들과 협력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그동안 내면에 얽힌 문제의 매듭을 풀어나갔다. 다시 학교생활이 재미있어졌다. 2학기에는 대학과 연계한 L.T.I 프로그램(Learning Through Internship Program : 직업현장의 멘토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스스로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프로젝트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성취를 얻도록 만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대학교에서 1대1 매칭으로 상담하고 대학생과 함께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두현이는 모델학과에 참여하게 되었다. 부산에 있는 대학교의 9시 수업에 가려면 집에서 7시에 나가야 하는데 학교수업에도 곤잘 지각하던 두현이는 기를 쓰고 시간에 맞춰 통학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모델과에 진학하여 모델이 될 꿈을 키우고 있다. ㉠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하고 특별한 교육적 사유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한 학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 중이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 부적응학생, 위기학생 등에 맞춤형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웅상고 꿈키움교실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시스템

글 김사옥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행정사무관

학업중단 학생 현황

학업중단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청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사회적 자립을 저해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비행이나 범죄 등의 문제로 인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¹⁾한다. 교육 통계에 따른 학업중단 현황을 보면, 초·중·고등학교에서 상급학교일수록, 수도권일수록 학업중단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중단사유는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비율이 높은 편이다.²⁾ 그러나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질병과 해외출국을 제외하고 2013년 3만 4천명에서 2014년 2만 8천 여 명, 2015년 2만 5천여 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39만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다.³⁾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게 되면 이 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표1. 최근 3년간 학업중단 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2015	2,714,610	14,555 (2,733)	0.54 (0.10)	1,585,951	9,961 (4,376)	0.63 (0.28)	1,788,266	22,554 (17,850)	1.26 (1.00)	6,088,827	47,070 (24,959)	0.77 (0.41)
2014	2,728,509	14,886 (2,777)	0.55 (0.10)	1,717,911	11,702 (5,476)	0.68 (0.32)	1,839,372	25,318 (20,249)	1.38 (1.10)	6,285,792	51,906 (28,502)	0.83 (0.45)
2013	2,784,000	15,908 (2,406)	0.57 (0.09)	1,804,189	14,278 (7,007)	0.79 (0.39)	1,893,303	30,382 (25,016)	1.6 (1.32)	6,481,492	60,568 (34,429)	0.93 (0.53)

(단위 : 명, %)

주 : 1) 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자 수 / 재적학생 수) × 100
 2) ()안은 질병, 해외출국을 제외하고 가사,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

1) 인적자원 손실 범죄율 증가 등으로 인해 학업중단 학생 1인당 약 1억 원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KEDI, 2010)
 2)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3)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지원 강화 대책(관계부처 합동, 2016)

사전예방의 핵심 '학업중단 숙려제'

교육부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 학업중단 숙려제가 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위기학생에게 일대일 멘토링, 심리상담, 예체능활동, 진로체험 및 기초학습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2012년 전국적으로 학업중단 숙려제를 시범 운영한 이후 2014년에 의무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마련하였고, 2016년 의무 시행근거를 시행령에서 초·중등교육법으로 상향 입법하여 단위학교의 숙려제 추진동력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숙려제 프로그램이 안정화된 시스템 안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3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단위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처럼, 앞으로도 정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가 학업중단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학업중단 위기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야한다.

표2.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학생 및 참여학생 중 학업지속비율

학년	숙려제 참여학생	참여학생 중 학업지속 학생	학업 지속비율(%)
2015학년도	43,854명	37,935명	86.50%
2014학년도	44,778명	36,691명	81.94%
2013학년도	10,589명	3,697명	34.74%

이에 학교는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내 Wee센터와 교외 위탁교육기관 등에서 심리상담, 진로직업 체험 및 기초학습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위기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지정 운영

2016년 학업중단 학생이 10명 이상 발생한 학교를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17년 421개교)로 지정하여 그 학교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교원 집중 연수, 방문 컨설팅 등의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해당학교의 학업중단 예방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 증가에 따라 학생 한 명 한 명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일반 초·중·고등학교에서 별도의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 내 대안교실'을 지원(17년 1,159개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정규수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며, 주로 학업 부적응 양태를 보이는 학생, 학교 폭력 가·피해 학생, 체험 위주의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교 부적응 사유해소 및

학업중단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정책 집행 결과, 최근 3년간 학업중단 학생은 <표1>과 같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한 학생의 학업 지속비율은 '13년 34.74%에서 '15년 86.50%로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표2>. 또한, 2016년 학생, 학부모 및 교원 1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학업중단 예방의 지속적인 추진이 학교 부적응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으로 학업중단 학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부적응 사유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이 매년 3만 여명이 발생하고 있다. 학생 개인에게도, 저출산·고령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도 학업중단은 매우 불행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처럼, 앞으로도 정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가 학업중단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학업중단 위기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야한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이들이 정규학교 안에서 학업을 지속하며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학업중단 예방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PISA 2015 학생 웰빙보고서 의미와 과제

글. 박은중 충남 광석초등학교 교장(공주대학교 겸임교수)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15 학생 웰빙(well being)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OECD가 전 세계 각국 15세 학생 54만 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성취동기, 신체 활동, 부모와의 관계 등과 2016년 읽기 등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 교육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즉 한국 학생들의 학력(학업성취도)은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이지만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28개국 중 27위, 비 OECD 국가를 포함한 48개국 중 47위로 나타나 심각한 수준이었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터키가 유일하다. 삶의 만족도 순위는 멕시코가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최상위권은 핀란드,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다.

2016년 기준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OECD 회원국 35개국 중 읽기 3~8위, 수학 1~4위, 과학 5~8위 등으로 최상위권이다. 한국은 학력은 높아도 삶의 만족도가 낮는데 비해, 교육 선진국들은 학생들의 학력과 삶의 만족도가 잘 조화돼 있는 게 특징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최고의 교육열에 걸맞게 사교육을 가장 일찍부터 시작하고 공부 시간도 가장 긴 반면, 신체 활동, 부모와의 대화, 스포츠 활동 등 공부 외의 삶과 관련된 핵심 역량 함양 활동 시간은 낮은 수준이다.

2015 학생 웰빙(well being)보고서의 의미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는 세계 각국의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실시하는데 수학, 과학, 읽기, 협력적 문제해결력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인지적 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평가와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생의 웰빙을 국가 간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발표한다.

학생 웰빙보고서는 전 세계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지만, 미래 한국 교육의 방향 전환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교육의 목표가 행복한 삶의 추구라는 점을 전제하면, 우리 교육이 본질을 추구하도록 방향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보고서의 내용대로 한국 학생들이 학급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 하고, 성적 스트레스가 심하며, 사교육과 방과후 학교 시작 시기가 가장 빠른 것 등이 진정한 학생들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를 성찰해야 한다. 또 학생 개개인은 각자 존귀한 인격체인데, 부모와 교사의 칭찬과 기대 때문에 공부에 매진하는 그릇된 교육 현실도 혁신해야 한다. 한국 학생들은 자신의 재능과 적성, 잠재력 등을 계발하는 공부가 아니라, 무조건 암기학습에만 매달려 성취 욕구는 매우 높는데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권이기에 때문이다.

학생 중심 행복 교육을 구현하려면
학생들에게 점수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껏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해 줘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교육 과제

미래 한국 교육은 암기 위주, 입시 위주 등 학업 성적·점수 향상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의 행복한 삶을 열어갈 핵심 역량 함양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또 학생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지금까지 한국교육이 걸어온 길에 대한 반성과 미래 교육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숙고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교사 중심의 교수(강의)에서 학생 중심의 학습(참여)으로 전환돼야 한다. 명제적 지식의 암기보다 방법적 지식의 탐구를 조장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자기 주도적 학습력, 문제 해결 능력 등 고급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학습 방법의 학습(learning of learning method)'이 개선돼야 한다.

특히 2014년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 충실한 인성교육,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민주시민교육, 자유학기제 등에 학생들이 몸소 주인공으로서 참여하는 학생중심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또 학생 개개인의 적성에 부합되는 맞춤형 교육,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소통과 공감하는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부모와 교사가 기대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바라는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협동 위주 '강강술래식 교육'으로 틀 전환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교육 강국 대한민국'을 지표로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천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공교육 혁신 및 사교육비 절감, 고교 학점제로 진로 맞춤형 교육 등을 교육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교육지표와 교육공약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 욕구와 삶의 만족도를 조화시키도록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국민 행복교육과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등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해 인성교육, 창체와 동아리 활동, 방과후 학교 활동, 자유학기제 등의 활성화에 교육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경쟁 위주의 한 줄 세우기식 교육을 지양하고 함께 공감·소통하는 어울림 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 교육정책의 방향이 경쟁 위주의 '100m 달리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협동 위주의 '강강술래식 교육'으로 틀이 전환돼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에 교육정책은 멀리 보고 똑바로 가야 한다.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 교육의 목적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변화를 통한 민주시민육성'이라는 점을 전제할 때, 교육의 본질을 다지는 정책으로 방향 설정을 해야 한다.

결국 학생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요구와 기대에 바탕을 둔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수업 혁신이 필수적이다. 또 학생 중심 행복 교육을 구현하려면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하고 싶은 공부', '즐기고 싶은 학습'을 수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려면 학생들에게 점수(성적)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껏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해 줘야 한다. ㉠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 선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196개 4년제 대학교의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주요 특징을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Q 전체 모집인원은 줄고 수시모집 선발비중은 소폭 늘었다고 하던데요?

전체 모집인원은 348,834명으로 2018학년도보다 3,49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2017학년도 355,745명 → 2018학년도 352,325명 → 2019학년도 348,834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수시모집은 조금 늘었습니다.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348,834명)의 76.2%인 265,862명을, 정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23.8%인 82,972명을 선발합니다.

구분	수시모집		정시모집		계(명)
	모집인원(명)	비율(%)	모집인원(명)	비율(%)	
2019학년도	265,862	76.2	82,972	23.8	348,834
2018학년도	259,673	73.7	92,652	26.3	352,325
2017학년도	248,669	69.9	107,076	30.1	355,745

Q 학생부 위주 전형은 얼마나 되나요?

학생부 위주 전형의 비중이 전년도보다 2.0%p 증가하여, 전체 모집인원의 65.9%인 229,881명을 선발합니다. 2017학년도 60.3% → 2018학년도 63.9% → 2019학년도 65.9%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분	전형유형	2019학년도	2018학년도	2017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	144,340명(41.4%)	140,935명(40.0%)	141,292명(39.7%)
	학생부(종합)	84,764명(24.3%)	83,231명(23.6%)	72,101명(20.3%)
정시	학생부(교과)	332명(0.1%)	491명(0.1%)	437명(0.1%)
	학생부(종합)	445명(0.1%)	435명(0.1%)	671명(0.2%)
합계		229,881명(65.9%)	225,092명(63.9%)	214,501명(60.3%)

Q 수시와 정시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세요.

핵심 전형요소 중심으로 표준화된 대입전형 체계에 따라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의 대입전형이 안착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인원 265,862명 중 229,104명(86.2%)을 학생부 전형으로 선발하고, 정시 모집인원 82,972명 중 72,251명(87.1%)을 수능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구분	전형유형	2019학년도		2018학년도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수시	학생부(교과)	144,340명(54.3%)	41.4%	140,935명(54.3%)	40.0%
	학생부(종합)	84,764명(31.9%)	24.3%	83,231명(32.0%)	23.6%
	논술 위주	13,310명(5.0%)	3.8%	13,120명(5.1%)	3.7%
	실기 위주	19,383명(7.3%)	5.6%	18,466명(7.1%)	5.3%
	기타	4,065명(1.5%)	1.2%	3,921명(1.5%)	1.1%
소계		265,862명(100.0%)	76.2%	259,673명(100.0%)	73.7%
정시	수능 위주	72,251명(87.1%)	20.7%	80,311명(86.7%)	22.8%
	실기 위주	9,819명(11.8%)	2.8%	11,334명(12.2%)	3.2%
	학생부(교과)	332명(0.4%)	0.1%	491명(0.5%)	0.1%
	학생부(종합)	445명(0.5%)	0.1%	435명(0.5%)	0.1%
	기타	125명(0.2%)	0.0%	81명(0.1%)	0.0%
소계		82,972명(100.0%)	23.8%	92,652명(100.0%)	26.3%
합계		348,834명	100.0%	352,325명	100.0%

Q 대학별 논술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인데요.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은 2개 대학이 추가됨에 따라 소폭 증가하였으나, 대학별 평균 모집인원은 지속 감소(2017학년도 495.4명 → 2018학년도 423.2명 → 2019학년도 403.3명)하고 있습니다.

Q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있나요?

고른기회전형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은 전년대비 3,065명 증가하였습니다. 2017학년도 39,083명 → 2018학년도 40,306명 → 2019학년도 43,401명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Q 2018학년도부터 절대평가로 전환되는 수능 영어영역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반영방식은 대학별로 다양합니다. 2018학년도부터 절대평가로 전환되는 수능시험 영어 영역은 수시 83개교, 정시 12개교가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하며, 정시에서 180개교는 비율로 반영하고, 14개교는 가(감)점으로 반영합니다.

모집시기	반영방법	대학수
수시	최저학력기준	83개교
		12개교
정시	비율반영	180개교
	가점부여	10개교
	감점부여	4개교

※ 일반전형 기준, 같은 대학 내 모집단위별 반영방법이 중복 산정

Q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이번에 발표되는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책자를 제작하여 고등학교 및 사·도교육청과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대입정보포털(어디가) 홈페이지(www.adiga.kr)에 게재함으로써 수험생, 학부모, 진학지도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교협의 진학·진로 상담교사들이 대학입학과 관련한 필수적인 정보를 Q&A 형식으로 정리한 「대입정보 119」와 주제별·시기별 대입관련 주요사항 요약자료를 고교 배포 및 대입정보포털(어디가)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대교협 대입상담센터에서는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현직 교사들과 전문상담원들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진학·진로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 전화 상담 ☎ 1600-1615 / 온라인 대입 상담 : 대입정보포털(어디가), www.adiga.kr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 마련



<p>소식... 들으셨어요?</p> <p>네.. 아무래도 어렵겠죠?</p>	<p>아이들이 편하게 뛰어 놀 수도 없으니...</p> <p>기대했다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p>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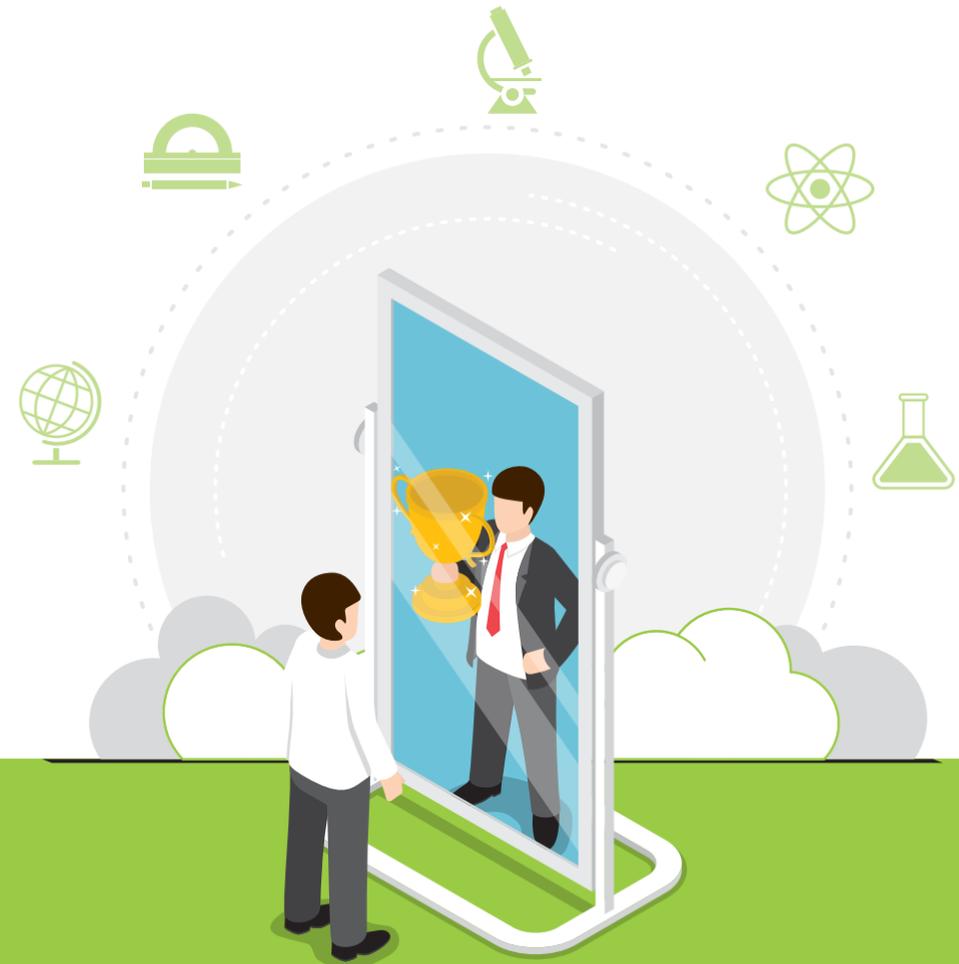
<p>오늘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할 줄은... 체육대회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p>	<p>네.. 아이가 오늘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걱정이에요</p>	<p>갈수록 미세먼지 피하는 심해지는데 뭔가 학교차원의 대책을 세워야...</p>	<p>걱정 마세요 어머니! 앞으로 학교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거든요!</p>
--	---	---	---

<p>미세먼지 인식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외수업 자제'를 미세먼지 '니뽀'부터 조치로 매뉴얼 강화 ✓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등 교육자료 개발·보급 	<p>학교 현장 대응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학교 관리자·담당자 대상 연수 강화 ✓ 교직원 안전동아리, 사·도 교육청의 미세먼지 선도 운영사례 분석 등을 추진 	<p>교내 메신저,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미세먼지 정보공유도 강화합니다.</p>
---	---	--

<p>특히 미세먼지 발생 시 단원 및 차시 순서를 조정하는 등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을 권장하고,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는 '간이체육실'을 설치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p>	<p>아~ 그럼 이제 조금은 안심해도 되겠네요~</p> <p>근데... 누구인지? 얼굴을 알아볼 수가...</p>
--	---

교육논단

나를 사랑하는 자존감 회복 교육



자존감에 대한 오해와 이해

교실 속 아이 자존감 높이는 교사의 실천

자존감에 대한 오해와 이해

글. 손석한 소아정신과 전문의(의학 박사)



‘자존감’이란 ‘자아존중감(自我尊重感, self-esteem)’의 준말이다. 말 그대로 자기가 스스로를 존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말한다. 즉 나는 이 세상에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로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가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과 자존심을 혼동해서 사용한다. 자존심(自尊心, pride)이란 남에게 굽히지 않는 당당한 마음, 즉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마음을 말한다. 여기에는 비교와 경쟁의 마음가짐이 들어가 있다. 자신감(自信感, self-confidence)도 종종 혼동되어 사용되는데, 이 말은 어떠한 일이나 활동을 잘 해낼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을 말한다. 주로 성취 또는 능력과 연관된 말이다.

자존감, 자존심, 자신감의 차이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결코 남에게 뒤지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늘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할 것이다. 그는 남에게 뒤처지거나 무시당하는 순간 자존심의 저하를 느끼며 몹시 속상해하거나 때로는 분노를 표현하기도 한다. 한편, 무엇이든지 잘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잘 하는 영역과 그렇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 자신감의 차이를 크게 보일 것이다. 그는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연설을 멋지게 해낼 수 있지만, 운동을 할 때는 몹시 위축된 모습으로 자신감 없이 임할 수 있다.

그러나 자존감은 다르다. 자존감은 남들보다 뛰어나기를 바라는 비교의 마음가짐이나 무엇인가를 꼭 잘 해내야 한다는 성취의 마음가짐과 떨어져 있다. 나는 비록 공부를 잘 못 하지만 그래도 학교 다니는 것이 재미있고,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학생은 자존감이 높게 유지된다. 그러나 현재 전교 2등을 하는 우수한 학생은 전교 1등을 이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할 뿐더러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다. 축구를 좋아하지

만 공을 정확하게 차는 것에 자신감이 부족한 아이는 축구 시간에 늘 긴장을 하고 친구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자존감이 저하되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자신이 비록 공을 잘 차지 못함을 알지만, 그래도 열심히 축구를 하려고 노력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려고 하면서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아이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존감은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로부터 비롯된다.

많은 사람들은 자존감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다. 예컨대 가난한 사람, 외모가 못생긴 사람, 일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 등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다.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가난을 한탄하고 슬퍼하면 자존감이 낮아지지만, 자신의 가난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가족의 화목함이나 자신의 건강 등으로 행복을 느끼면 그는 누구보다도 더 높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다. 못생긴 사람 역시 자신이 외모를 탓하고 잘 생긴 사람을 부러워하면 자존감이 낮아지지만, 자신의 외모보다는 내면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부족한 외모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높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다.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화법

그렇다면 이러한 자존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바로 부모의 양육 태도와 행동이다. 아이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부모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아이의 자존감은 올라간다. 부모의 긍정적인 반응이란 아이에 대해서 “잘 하고 있다”, “맛다”, “괜찮다.” 등의 말과 함께 아이를 인정하거나 아이에게 관심을 주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지금부터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화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다. 이는 아이의 감정 상태 또

는 의도를 알아채서 아이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지금 아이가 TV 만화를 보면서 재미있게 웃고 있다. 아이가 긍정적 정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때 부모는 “영수가 지금 재미있어서 기분이 좋구나.”라고 말해준다. 또는 아이가 조금 전 친구와 다투고 난 후 씩씩거리고 있다. 아이가 부정적 정서 상태에 놓여 있음이다. 이때 부모는 “가희가 지금 기분이 좋지 않구나. 친구와 다투고 나서 화가 났지?”라고 말해준다. 이와 같은 대화법은 아이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우리 엄마가 나의 기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내가 기분이 좋은지 또는 나쁜지에 대해서 엄마는 잘 알고 싶어 한다. 엄마에게 나는 매우 소중한 사람이구나.’ 바로 그 순간 자존감이 올라가는 시점으로 작용한다.

둘째,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다. 이는 아이의 말과 행동을 가급적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들려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다소 비만 체형의 아이가 밥을 잘 먹는다. 부모는 “준석이 밥을 잘 먹으니까 키 크려고 하는 것 같아. 몸도 튼튼해질 거야. 그런데 체중이 너무 나가면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음식을 조절하자.”라고 말해준다. 이는 긍정적 해석으로서 아이의 자존감을 잘 지켜 줄 수 있다. 만일 “이제 그만 먹어. 그렇게 먹다가는 더 살이 찌서 진짜 비만이 되고 성인병에 걸려.”라고 말한다면? 이는 부정적 해석으로서 아이의 문제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자존감을 깎아 내린다.

셋째, 칭찬하기다. 칭찬이 아이의 자존감을 올려준다는 사실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예컨대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방을 청소했다. 부모는 “네 스스로 청소하다니 다 컸구나! 잘했다.”라고 말해주자. 이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좋은 칭찬이다. 그러나 단지 “아이, 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 잘못된 칭찬이다. 만일 “방을 청소하다니 놀라운데!”라고 말하면? 다소 기대 밖 또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부모의 생각이 슬며시 배어 나오는 반응으로 아이의 자존감이 상할 수 있다.

넷째, 자율성(또는 선택권)을 주다. 아이에게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부모가 나를 믿고 있다는 느낌을 아이는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엄마, 저 오늘 무슨 옷 입어요?”라는 아이의 질문에 “네가 마음에 드는 옷으로 골라서 입

자존감은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로부터 비롯된다.

어 봐. 고르기 힘들면 엄마에게 보여준 후에 함께 결정하자.”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이의 주관적인 선호도를 인정해 줌으로써 보다 더 독립적인 개체로서 인정받는 느낌을 가진다. “저기 안방의 첫 번째 서랍 속에 있는 파란 바지와 그 아래 서랍의 빨간 티셔츠를 입어.”라고 말하면? 아이는 매사 엄마의 지시를 받음으로써 점차 의존적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회피하게 된다. 의존적인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경향이 있다. 혹시 “아무 거나 입어. 넌 그런 것마저 엄마에게 하나하나 물어보나?”라는 말은? 아이를 비난함과 동시에 성가신 존재로 만드는 말이다. 아이는 부모의 관심 또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껴서 화가 나거나 슬퍼될 것이다. ‘자존감’이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느낌을 말한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어서 열심히 노력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한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여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며, 자신을 비하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의심하거나 무시한다. 아이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노력은 부모와 교사가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할 내용이다. ②



손석한 소아정신과 전문의는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 동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 방배동에서 연세정신과의원 소아청소년정신과 원장을 맡고 있으며, 「고3보다 까칠한 중학생 아들 키우기」 등 십여 권의 육아관련 서적을 집필하고 대중 강연을 하는 등 자녀 양육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한소아청소년정신학회 이사, 서울특별시 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위원장, 서초구청 서초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위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학대전문상담원과정 강사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교실 속 아이 자존감 높이는 교사의 실천

글. 허영림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 자존감이다. 자존감은 남들이 내리는 객관적 판단이라기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 교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몇 가지 짚어 본다.

아이의 자존감은 교사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지며 그것이 아이 자존감 갖기의 시작이다.

예전에 들은 사례이다. 교실에서 뛰어다니는 말쑥꾸러기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를 교사는 여러 방법으로 제지하고 통제해도 아이를 이길 방법을 찾지 못했다. 고민 끝에 교사는 며칠 방치하고 궁리하고 있다가 어느 날 오후, 그 아이를 따로 불러 아이의 손을 붙잡고 진지하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내가 겪은 아이들 중에 제일 에너지가 많고 힘이 좋은 아이이다. 그래서 난 아마도 나중에 네 손과 발로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거짓말처럼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서서히 달라졌고, 본인을 인정해주셨던 선생님에 대한 보답으로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 의사가 되었다. 그 후에는 고통 받는 사람을 돕기 위해 의료 해외봉사를 자주 다니고 있다. 아이가 교사의 말처럼 된 것이다. 교사의 그 생각이 사랑이며, 그 사랑을 느낀 아이는 받은 사랑을 평생 마음에 두고 자신감을 키우고, 자존감 있는 삶을 살게 된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기다릴 줄 아는 교사가 신나는 아이로 키운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갓난아이가 일어나서 앉고, 걷고, 말하고, 글자를 알게 되고,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모든 것에는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에게 뽀박질을 가르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아이가 뛸 수는 없다. 아이마다 개연차가 있으므로 다른 원칙을 가지되, 일관성 있게 지켜봐야 한다. 즉, 목표를 가지고 그 아이에 맞는 교육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매년 선택의 기로에서 걱정과 우려가 교차되며 흔들리게 된다. 즉 목적지 없이 떠나는 배는 바다를 표류할 뿐이지만 목적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배는 바다를 유유히 항해하게 된다. 다시 말해, 신나고 활기찬 교실로 만드는 일은 교사가 그 아이에 맞는 교육법을 가지고 아이가 해낼 수 있는 것을 예측하며 놀라운 결과만을 기다릴 줄 아는 교사다. 이때 서두르거나, 조급증을 낸다면 실패하는 것이다. 오히려 아이 스스로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홀로 우뚝 설 때까지 묵묵히 지켜보며 기다려주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아이 말을 맘으로 읽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가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이에게는 커다란 상처가 되고 슬픔이나 분노,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기도 한다. 아이가 쉽게 상처받고 두려움을 느끼는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거나, 동생에게 사랑을 빼앗겨 속상하고 서러운 마음이 들어서 일수도 있다. 이럴 때, 교사는 아이의 마음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조용히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교사는 아이의 생각이나 말을 잘 듣고 일단 위로해주고, 다독인다. 즉, 아이의 말을 통해 아이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한다. 만약 적절히 아이 맘을 읽지 못했다면 아이는 부정적인 감정이 차곡차곡 쌓여 마음의 병이 들게 된다. 마음이 병든 아이는 소리를 지르거나 누군가를 때리는 등 교실 내 폭력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감정을 터뜨릴 수 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부정적인

교사의 사랑을 느낀 아이는
받은 사랑을 평생 마음에 두고 자신감을 키우고,
자존감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생각을 하기 쉽고,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데 서툰 사람이 된다. 이런 식으로 커간다면 자존감을 갖고 자라기는 힘든 아이로 봐야한다. 피아제는 인지적으로 우수한 아이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사회정서적 발달이 안정적인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똑똑한 아이 이전에 행복하고 바른 아이들 중에 몇몇이 공부에 집중하며 잘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좋은 습관은 칭찬이 만든다.

어릴 때 주변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주느냐에 따라 아이에게 좋은 습관을 키워줄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올바른 습관을 키워 주려면 교사의 올바른 훈육이 필요하다. 즉, 올바른 습관은 아이에게 교실에서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일관된 태도로 교육하고 지도해야 한다. 이때 아이에게 좋은 습관이 자리 잡게 하기 위해 칭찬만큼 좋은 것은 없다. 교사에게 칭찬받은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 받았다고 생각해서 기뻐하고, 그런 기쁨을 맛본 아이는 다음에도 칭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된 아이들은 점차로 주변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도는 몸에 밴 습관처럼 선행을 하고, 그것을 당연한 일처럼 생각하게 된다. 교사는 아이가 잘한 점을 먼저 칭찬하고 나중에 보완할 부분을 지적하면 기분 좋게 새로운 것을 배우며 잘못을 고치려 한다.

집중하는 힘은 놀이가 만든다.

특히 어떤 아이들은 교실 환경에서 매사에 집중이 안 되고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교사들은 우려한다. 그럴 때 아이에 대해 가장 쉽게 알아내기 위한 방법이 자유 시간(노는 시간)에 아이가 집중해서 노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다. 사실 어려서 놀 때 집중하는 힘이 학교에서 공부에 몰입하는 힘이고, 나중에 사회에 나오면 일할 때 쓰는 ‘열심’과 같은 에너지이다. 사실상 놀이와 공부와 일이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셈이다. 그래서 놀이에 집중해서 노는 아이들은 참으로 다행이고 희망적이다. 놀이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에게 삶에 활력소가 되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나이와 학년에 상관없이 선행학습을 강요하다 보니 아이들은 일찍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런 아이들이 자신의 정서 세계를 탐색하고,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이 바로 놀이이며 치료다. 가끔씩 아이들에게 자유 시간을 주어 각자가 자기를 찾고 치유하는 시간을 허용하자. ㉞



허영림 교수는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유아교육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 영국, 홍콩, 중국 등 해외에서도 부모교육, 교사교육, 유아교육, 해외에서의 자녀교육 등을 주제로 활발한 강연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내 아이의 자신감 자존감』, 『보는대로 배우는 아이들』, 『거꾸로 키워지는 아이들』 외 다수가 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건전한 스포츠 활동은 체력 증진은 물론, 인성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에게 ‘학교체육’은 운동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 등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에 힘써오고 있다. 시·도 교육청에서도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체육교사 양성, 학교수업 수업 확대 등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멘토링으로 좋은 체육교사(더 프로 멘) 양성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신규 임용되는 체육교사를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을 통해 좋은 체육교사상을 정립하고자 ‘더 프로 멘(The Pro Men)’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4학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교사교육 프로그램으로써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겸비한 멘토(우수 체육교사, 체육전문가 등)와 멘티(신규 체육교사)가 학교체육 영역별로 멘토링 활동을 하며 신규 체육교사 학교생활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학교체육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하여 체육교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업무(담임업무, 공문서 처리 등) 등이 있다. 올해는 2015~2017학년도 신규 임용된 52명의 체육교사와 23명의 멘토들이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에서 인지도 있는 교육과정 영역의 전문가와 창의적 교수·학습 영역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세미나 개최를 추진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과 내실 있는 멘토링 활동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지역에 신규로 임용되는 체육교사는 ‘더 프로 멘’ 사업에 3년간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멘토링 활동 영역으로는 수업 컨설팅, 교과연구 활동,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학교운동부 운영, 생활지도, 기타 학교

‘더 프로 멘(The Pro Men)’은 「The Project to Make Good PE Teachers Through Mentoring - 멘토링을 통한 좋은 체육교사 만들기 프로젝트」의 줄임말로 ‘더 좋은 체육교사’ 또는 ‘체육 전문가’를 뜻하며,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음

- ‘더’는 More, The의 의미로 더 좋은 체육교사가 되고자하는 바람과 의지
- ‘프로’는 멘토링을 통해 체육교사로서 프로페셔널(professional)이 되자는 것
- ‘멘’은 Mentoring을 통한다는 것으로 Mentoring의 약자이기도 하고 Men의 의미로 체육교사들을 지칭함



‘복새통 리그전’으로 학교체육 활성화!

경남 함양중학교(교장 윤창영)에서는 올해 3월부터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체육관과 운동장 등에서 학교 스포츠 활동인 ‘복새통 리그전’을 실시하고 있다. ‘복새통 리그전’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4년째 해오는 함양중학교만의 독자적인 학교 스포츠 활동으로서, ‘멋진 함중, 자랑스러운 우리, 행복한 학교’라는 슬로건 아래 축구, 농구, 피구 3종목을 중심으로 전교생이 참여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 리그전은 학생들이 학업과 전자기기 사용 등의 이유로 ‘보는 스포츠’에만 그치는 데에 착안하여 직접 ‘하는 스포츠’, ‘즐기는 스포츠’로의 변화를 꾀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 활동으로 체력 증진, 사회성 함양, 협업 능력 배양 등을 통한 인성교육 및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최종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리그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생 스포츠 자치위원회를 조직하여 심판진 및 대진표 구성, 경기 진행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이 최소한 1종목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 기회의 형평성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경상남도교육청 스포츠 리그전 정책 사업’으로 선정되어 운영면에서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점심시간 70분 중 45분을 복새통 리그전 운영시간으로 삼아 충분한 활동이 이루어지게끔 하였으며, 우수 활동 학생 및 학급에는 학교장상을 수여하고 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는 봉사 시간을 부여하여 사기 진작에 힘쓰고 있다. 학년별로 축구, 농구, 피구 종목을 순환하면서 연중 실시하여 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경상남도교육청 스포츠 리그전 정책 사업’으로 선정되어 운영면에서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점심시간 70분 중 45분을 복새통 리그전 운영시간으로 삼아 충분한 활동이 이루어지게끔 하였으며, 우수 활동 학생 및 학급에는 학교장상을 수여하고 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는 봉사 시간을 부여하여 사기 진작에 힘쓰고 있다. 학년별로 축구, 농구, 피구 종목을 순환하면서 연중 실시하여 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2002 한·일 월드컵 기념, 동아리축구대회 16년째 개최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진출을 기념하고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와 여학생 체육활동의 일환으로 4, 5, 6, 7학년별, 남녀별, 1, 2부별 동아리 축구대회를 2002년부터 실시, 올해로 16회째 대회를 개최하였다.



동아리축구대회의 우수성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학교규모를 고려했다. 초등학교 6학급 이하의 학교는 1부로 출전, 7학급 이상은 2부로, 중학교 3학급 이하의 1부, 4학급 이상은 2부로 출전하는 기준을 만들어 경기 외적 기준을 고르게 함으로써 초·중학교 전학교의 출전을 이끌어냈다. 둘째, 학년별 출전선수 수를 세분화와 여학생부를 만들어 여학생 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4학년부는 출전

선수를 4명으로 5학년부는 5명, 6학년부는 6명, 중학교 7학년부는 7명으로 구성하고 경기장 규격도 학년별로 달리하여 선수들의 체력향상은 물론, 경기력 향상과 흥미를 북돋웠다. 셋째, 월드컵 개최국이 4년에 한 번씩 바뀌듯 매년 개최 시·군을 충북의 10개 교육지원청별로 순환 운영함으로써 주최하는 교육지원청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과 지역의 체육인프라 확충의 기회로 활용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올해 U-20 월드컵 개최국으로 1986년 4강의 기적을 다시 한번 재현하길 기원하면서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동아리 축구대회로 승화시킨 설암 김천호 선생의 뜻을 받들어 “신나는 학교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밑거름으로 삼고 있다.



스포츠로(路) 행복한 학교 만든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스포츠로(路)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학교체육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몸과 마음이 대화할 수 있는 훌륭한 교육활동인 스포츠를 ‘만나고’, ‘즐기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선물하고 있다.

지역사회 재능기부로 ‘찾아가는 스포츠교실’을 열어 농구, 킨볼, 연식야구, 치어리딩 등을 하고 있다. 학교스포츠클럽 상시리그는 작년



5개 종목에서 올해는 7개 종목(축구, 배드민턴, 탁구, 플로어볼, 피구, 킨볼, 풋살)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또, 학생들의 흥미, 관심, 요구를 반영하여 스포츠 참여의 기회를 열어주는 토너먼트 중심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15개 종목으로 운영한다. 저학년 학생들도 운동장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서 열정을 발산하도록 꿈나무 학

교스포츠클럽대회도 운영한다. 스포츠로 행복한 길을 열어주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지향하는 세종교육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다.



“물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대구광역시교육청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아픔을 겪은 그 해 2학기부터 관내 63개 초등학교 3학년 4,305명을 대상으로 4개 교육지원청(4개 구·군)이 중심이 되어 수영 실기교육(생존수영 포함)을 시범 운영하였다. 2014년의 시범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5년에는 3학년 전체(220교, 20,245명), 2016



또한, 2014년부터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교원 업무 경감에 초점을 맞추어 수영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교부 후 결과를 보고받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모든 수영 실기교육 업무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계획하고 시행한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수영장 섭외(2014년 7개→2015년 18개→2016년 22개→2017년 24개), 임차 버스 지원청별 일괄 입찰, 세부 일정 등을 수립하여 학교와 충분한 소통 후 학교가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는 교육지원청 계획에 따라 수영장에 학생들을 인솔만 하면 수영 실기교육이 마무리된다. 1인당 10시간인 수영 실기교육비는 전국 최저가인 33,000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 대구의 수영 실기교육은 학생들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생존 능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학교지원으로 예산 절감 및 교원 업무 경감에도 기여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년 3, 4학년(3학년 전체, 4학년 일부 27,869명), 2017년 3, 4, 5학년(3, 4학년 전체, 5학년 일부 47,645명)을 대상으로 매년 생존 수영을 확대 운영해오고 있다. 수영 실기교육을 전면 확대하여 실시한 결과,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수영 실기교육에 참여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95% 이상이 “10시간의 수영 실기교육이 매우 재미있었고 위기상황에서 안전하게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했다.



부산의 모든 학교에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한 체력 향상과 밝고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을 전 학교로 확대 운영한다. 기존의 학교스포츠클럽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일부 학교에만 국한되어 운영하였으나, 2017학년도부터 자체예산 6억 6800만 원을 별도 확보하여 전 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교육여건이 취약한 학교와 체육활동에 소극적인 여학생들을 정책적으로 특별 지원한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주)롯데디자인츠, (주)부산아이파크, (공)스포윈 등과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성해 ‘찾아가는 티볼·축구 교실, 풋살 대회, 교사 연수’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티볼 세트, 축구공, 풋살공, 자전거 등 각종 스포츠 용품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저체력과 비만 등으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서 소외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바우처와 건강체력교실 지원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펼친 결과 그 효과가 학생들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율 확대에 이어지고 학생들의 건강체력(PAPS)과 바른 인성 함양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운동을 펼치는 하버드 의대 존 레이티 교수는 “온종일 학교와 학원에 앉아 지내는 한국식 교육은 학생들 능력과 창의력을 끌어 내린다.”고 말했다. 입시만능 교육에 대한 뼈아픈 경고다. 부산시교육청의 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학생들의 집중력, 성취욕, 창의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 ‘스포츠 체험교실’



광양백운초(교장 박정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주관으로 지난 4월경 스포츠 체험교실을 운영하였다.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동계올림픽을 알리기 위해 실시한 이번 스포츠 체험교실은 동계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이 동계올림픽을 알아보고 배려와 협동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직접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것으로 시작된 스포츠 체험교실은 일회성의 이벤트적인 행사가 아니라 평창 동계올림픽을 교육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광양백운초는 동계스포츠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학생스케이트 동아리와 동계스포츠 스타 방문 등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학교 방문으로 학생들은 골든벨 퀴즈를 통해 동계올림픽에 대해 알아보고 스포츠 체험교실을 통해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었다. 특히 스포츠 체험은 학생들이 모두 팀을 만들어 협동해서 참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스포츠 교실에 참여한 한 학생은 “골든벨을 풀면서 동계올림픽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친구와 함께 협동하면서 참여해 더욱 재미 있었다.”고 말했다 ㉠

창의적 아이디어에 메이커 교육을 더하는 미국

01 메이커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학교도서관
 02 Maker Education Initiative에서 발간한 오픈 포트폴리오 매뉴얼
 03 2017 Intel ISEF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날개로만 이루어진 비행기'

최근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은 큰 편리함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직업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약 5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일자리가 사라질지 아닐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지만 일자리의 형태가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일치된 생각이다.

알파고 쇼크에서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었듯이 더 이상 주입식 교육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다보스포럼에서는 미래에 필요한 역량으로 다음 10가지를 제시하였는데, 메이커 교육은 이러한 능력을 복합적으로 키워주는 데 가장 적합한 교육 방식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고자 교육의 모습이 크게 바뀌어가고 있으며, 이에 가장 앞선 나라가 미국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4년에 미국을 메이커의 나라라고 선언하고 백악관에서 메이커페어 행사를 개최하고, 메이커 주간을 선언하는 등 STEM 교육에 이어 메이커 교육을 정책의 주요한 이슈로 추진하여 왔다. 이에 동참하여 메이커 교육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많은 학교들이 도서관을 메이커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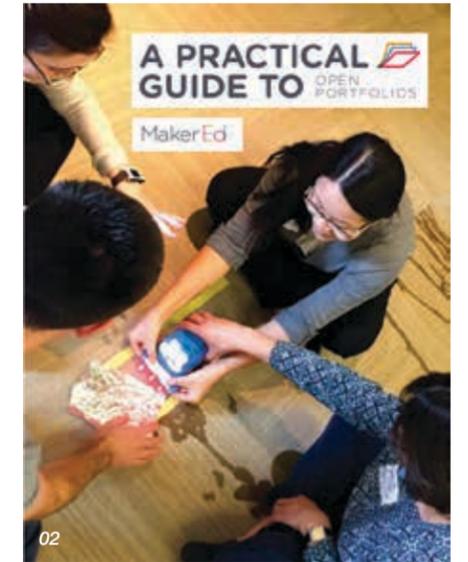


개한 동영상은 글로 작성된 어떤 자기소개서보다도 훨씬 생생하게 학생에 대하여 알려줄 수 있으며, 기록의 당사자가 학생이기 때문에 아울러 교사의 수고까지 덜어줄 수 있다.

지난 5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인텔 ISEF (Intern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Fair)가 개최되었다.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본 대회에서 전 세계에서 모인 1,700여 개 팀이 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겨루었는데, 최고상을 받는 우승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시제품으로 만들어서 보여주었다.

이제 학생들의 과학 공학적인 아이디어는 단지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현되어 소개되는 시대에 와 있다. 일단 만들어지게 되면 개선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상품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이 STEM 교육을 소프트웨어 교육과 메이커 교육과 접목하려는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실리콘벨리가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제조업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려는 것이다. 메이커 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자신의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세상에 없던 무엇인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줄 수만 있다면 제4차 산업혁명의 어떠한 위협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②



소프트웨어와 메이커를 결합한 교육

디지털 카메라와 유튜브, 블로그 등의 사용에 익숙해지면서 우리는 쉽게 자신의 작품 활동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다른 메이커들과 쉽게 교환하기 위한 방법이 전자적인 포트폴리오인데, 메이커 교육을 이끌고 있는 MakerEd(Maker Education Initiative)에서는 오픈 포트폴리오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MIT는 대학입학사정을 위한 제출 자료로 2분간의 동영상과 설명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제출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자신의 작품 활동을 소

[다보스포럼]

미래에 필요한 역량 10가지

1. 복잡한 문제 해결 (Complex problem solving)
2. 비판적 사고 (Critical thinking)
3. 독창성(Creativity)
4. 사람 관리(People management)
5. 다른 사람과의 협력 (Coordinating with others)
6. 감성 지능(Emotional intelligence)
7. 판단 및 의사결정 (Judgment & decision-making)
8. 서비스 방향(Service orientation)
9. 협상(Negotiation)
10. 인지적 유연성 (Cognitive flexibility)

01



출처: <https://colleengraves.org/2016/03/14/library-makerspace>

03



학급경영 하수, 중수, 고수의 차이점

혹시 일본 최대의 교사연구 단체인 토스(TOSS)에 대해 알고 있나요? 약 1만 명이 넘는 초·중등 교사들이 스스로의 수업 기술을 향상시키고 그런 기술이나 방법을 전국 교사들의 공유 재산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교사 연구 단체입니다. 토스(TOSS)는 인터넷에서 선생님들이 교육 기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토스랜드(TOSS LAND)'라는 포털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각 교과의 수업 방법에서 학급 경영 기술 및 특별 지원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콘텐츠가 2만 개 이상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접속 수는 누계로 약 1억 3천만, 한 달에 약 200만 페이지 뷰가 있으며, 현재 70여 개의 나라 교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글 크롬 웹브라우저로 토스랜드(tos-land.net)에 접속하면, 일본어를 몰라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한국어 번역'을 선택했을 때 일본 교사들의 수업자료를 바로 한글로 볼 수 있습니다.

무꼬야마 요이치의 '취지 설명의 법칙'

일본 최대의 교사 공유사이트 '토스랜드'를 1983년 만들었던 초등학교 교사 무꼬야마 요이치는 오랜 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열중하는 수업에는 법칙이 있다'라는 저서에서 수업의 원칙 제 1조로 '취지 설명의 법칙'을 소개합니다.

'아마추어 교사'는 하게 될 일만을 말합니다. "쓰레기를 주우세요." "좀 더 나은 교사(검은 띠 수준의 교사)는 취지와 하게 될 일을 말합니다. "교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주우세요. 시간은 5분간입니다."

'프로 교사'는 취지를 말하고, 할 일은 학생에게 말합니다. "교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세요. 시간은 5분간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말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합니다.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 하는 생각으로 지시하고 또 지시하고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그렇게 1년을 반복합니다. 잔소리가 효과가 있었다면 점점 줄어야 하고, 아이들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변화가 있나요? 아이들은 긍정적으로 변화하나요? 교사의 잔소리는 점차 줄어드나요? 도리어 잔소리 시간만 점점 늘어가진 않았나 고백합니다.

학급경영의 하수, 중수, 고수

수업을 보는 '취지 설명의 법칙'을 좀 더 발전시켜 학급경영을 바라볼 때도 하수와 중수, 고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복도를 바람처럼 달러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이 '학급경영의 하수'라면, 아이가 '하게 될 일'만을 말할 것입니다. "누가 복도에서 뛰라고 그랬어. 너 이리와. 몇 번이야." 선생님께 혼나면서 아이는 반성하고 이제부터는 복도에서 뛰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할까요? 과연 그럴까요? 명령하는 말들이 '나 대 너의 관계'를 지속시킨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 뒤에 숨어있는 메시지는 "너희들은 내 통제 하에 있으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입니다. 이제 교사에 대해 부정적인 연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도 반항적이거나 비협조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연상은 무의식적인 수준이 있는 것조차도 학습과 행동에 극적인 영향력을 갖습니다. 복도에서 걸린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다시는 들키지 말아야지' 다짐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교사가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면, 이미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선생님이 '학급경영의 중수'라면,

선생님이 '학급경영의 중수'라면,

지치기 쉬운 6월, 아이들과의 생활 속에서 '지시하고 명령하기'보다 '질문하고, 스스로 행동을 선택할 기회를 주시기'를 응원합니다.

'취지와 함께 하게 될 일'을 말할 것입니다. "복도에서 뛰면 다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세요."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학급경영의 중수'가 되려면, 무엇보다 아이에게 모욕을 주지 않고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하임.G.기너트의 『교실을 구하는 열쇠』에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하루에 교단의 현실, 예컨대 과밀 학급, 학생들의 끊임없는 요구,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위기를 생각하면 교사들이 화를 내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교사들은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가 없다. 유능한 교사라고 해서 자학을 하거나 순교자가 될 필요는 없다.

화를 내지 않는 교사가 아니라 화를 내더라도 아이들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고,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모욕을 주지 않고,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SBS 이경원 취재 기자가 핀란드에 유학 갔을 때 겪었던 일을 쓴 기사(2014.7.14.)가 큰 시사점을 줍니다.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중략) 한 친구가 수업시간에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교수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교수 : 자네. 모자 당장 벗지?

그런데, 이 프랑스 친구, 그걸 못하겠답니다.

학생 : 나는 모자를 쓰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상관할 바 아니죠. 10년 전 기억 때문인지, 제가 다 긴장했습니다. 사춘기 소년도 아닌데, 반항할 게 없어서 수업 시간에 모자 쓰고 싶다고 저러나, 그냥 벗지 왜 분란을 만드나 이해를 못했습니다. 역시 버릇없는 녀석은 세계 어디에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꼬장꼬장한 교수의 반응은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교수 : "나는 수업할 때 학생들의 눈을 보는 걸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눈을 보고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느끼고, 그걸 통해 피드백을 한다. 그런데 모자를 쓰면 그걸 느끼지 못한다. 결과적으

로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거다. 네가 모자쓰길 고집하는 건 나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으로, 다른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만일, 모자를 벗을 수 없다면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위해서라도 교실에서 나가라." 결국 그 프랑스 친구는 모자를 벗었고, 교수는 별 말 없이 곧바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혹시 크게 화가 났더라도 취지를 설명하면서 아이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선생님은 이미 학급경영의 중급에 올라와 있는 셈입니다.

선생님이 '학급경영의 고수'라면, '취지를 묻고 할 일은 학생이 선택하게' 할 것입니다. 비록 잘못했다라도 아이들은 뭔가 인정을 받으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잘했을 때는 칭찬이나 인정을 받고, 잘못했을 때는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복도를 바람처럼 달러가는 아이를 만났을 때 고함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복도에서 이렇게 뛰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질문을 받으면, 거절할 여지가 자신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존중받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이는 최선을 다해 자기 나름의 대답을 내놓을 것입니다. "뛰면 다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이때 아이의 행동을 선택하게 하는 질문을 이어 던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니?" 아이가 몰라서 복도에서 뛰었을까요? 아이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야 해요." 꾸중하고 질책하지 않고 이렇게만 말해 주세요. "네가 지금 말한 대로 해보겠니?" 아이가 천천히 걸어가는 뒷모습을 지켜봐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들러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야단치는 데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야단치니까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치기 쉬운 6월, 아이들과의 생활 속에서 '지시하고 명령하기'보다 '질문하고, 스스로 행동을 선택할 기회를 주시기'를 응원합니다.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㉓

궁금하다
궁금해~

요즘 애들 어디 가서 놀까?

아이들은 집을 나서면 어디에 가서 놀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학습시간이 매우 긴 편이어서 학교나 학원 근처에서 잠시 시간을 내는 실내형 놀이, 소위 '방'에서 논다.

서로 친해지는 공간, 노래방

서로 말문을 트기 위해서 혹은 더 친하게 어울리고 싶어서 곧잘 가는 곳이다. 아이들에게는 보통 1시간 4인 방 1개에 8천 원, 1명을 추가하면 2천 원씩 더 받고, 보너스 1~2시간을 준다. 그러니까 1만 원으로 5명이 2~3시간 동안 놀 수 있다. 사람 수가 적으면 코인 노래방에 혼자 혹은 두세 명이 들어가서 1천 원을 주고 3~5곡 정도 부를 수 있다.

아이들은 인기차트에 나오는 노래를 취향에 따라 선택해서 부른다. 이때 각자 자신을 표현하고 서로 이해하는 기회를 얻는다. 노래를 부르다 목이 마르면 음료수나 물을 마시는데, 더러 학생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뺑뺑이를 주는 곳도 있다.

아이들이 많이 가는 곳에는 어른들이 노래 도우미를 부를 수 있는 노래방, 술이 나오는 가라오케, 혹은 술집과 노래방을 겸한 노래타운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비교적 서로 분리가 잘 되는 편이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 18세 이하이거나 고교 재학생은 밤 10시 이후 출입을 할 수 없고 담배나 술을 먹거나 팔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더러 남녀가 섞여 들어가서 불량한 성인흥내를 내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건전하게 노래를 즐기는 편이다.

아이들의 카페, PC방

최신식 사양의 컴퓨터, 저렴한 가격, 각종 편의시설 그리고 멋진 실내시설 때문에 매년 진화를 거듭하는 아이들의 카페다. 노래방과 달리, 돈가스, 볶음밥, 햄버거, 라면, 치즈핫떡볶기, 매콤라볶기, 덮밥류, 핫도그, 만두, 탕수육, 칵테일맥주 등 아이들을 위한 먹거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아이들은 안락한 의자에 기대서 저녁도 해결하면서 게임도 즐긴다. 저녁 시간이나 학원의 공강 시간을 이용해서 잠시 놀기엔 더없이 편리하고 쾌적한 장소다. 게다가 1시간에 1천 원이고 음식값도 1~3천 원이니 부담도 적다.

아이들은 PC방에 가면 무얼 할까? 거의 전부 게임을 하고, 더러 영화를 보기도 하고(아한 영화도 보긴 한다. 집보다는 속도가 엄청 빠르고 엄마가 없어서 덜 부담스럽다^^), 웹서핑도 하고, 과제를 한다. 요즘 인기 게임 1위는 AOS 장르에 속하는 리그오브레전드(LoL), 2위는 FPS

호모사피엔스이기보다는 호모루덴스에 가까운 아이들이 방을 벗어나서 파란 잔디밭에 반짝이는 자전거를 뉘어놓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신체형 실외 놀이가 대세를 이루는 시간이 올까?

게임인 오버워치인데 둘 다 전투게임이다. 손님들은 대개 10대에서 20대지만 옛날과 달리 여자애들도 30% 정도를 차지한다. 게다가 피시존(커플룸)이 잘 되어 있어서 사생활 보호라는 면에서 호평을 받기도 한다.

PC방에도 게임중독이나 탈선의 위험이 있지만, 그 비율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비율의 수준이어서 크게 염려할 만한 것은 아니다. 한때 콜라텍(1인 입장 2천 원 음료 1천 원)이 유행했지만 PC방에 밀리는 이유는 가격, 시설, 편리성, 인기 등 모든 면에서 PC방이 우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다만 청소년은 저녁 10시까지 이용해야 하지만, 가끔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흠이긴 하다.

최근 인기 장소, 파티룸

10여 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생축(생일축하), 피자파티, 반창회, 동아리 모임, 오락, 추억 만들기 등을 하는 공간이다. 커다란 공간에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싱크대, 응접세트, 보드게임(할리갈리, 루미큐브, 다빈치코드 등) 도구, TV, 침대가 있고, 노래방, 음악룸 같은 부속방도 있다.

대학생들이 먼저 사용했지만, 청소년들도 뒤따라 사용하는 추세다.

아이들은 여기서 장을 봐와서 직접 음식을 해 먹거나 음식배달을 시키기도 하고, 화이트칼라의 예쁜 벽지와 상큼한 조명을 포토존 삼아서 먹방도 찍고 오락도 하고 게임도 하고 수다도 떠다. 가격은 7~8만 원 선인데, 1박을 하기도 하지만 대개 저녁 시간만 이용할 때가 많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아이들은 주로 방에서 논다. 집과 학교와 학원을 순례하는 틈새에서 찾아낸 것은 방일지도 모른다. 호모사피엔스이기보다는 호모루덴스에 가까운 아이들이 방을 벗어나서 파란 잔디밭에 반짝이는 자전거를 뉘어놓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신체형 실외 놀이가 대세를 이루는 시간이 올까? 어른들이 도와주면 가능할 것이다. ②



나라사랑 앞장서는 통일안보체험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이 땅을 지킨 호국영령을 기리는 마음으로 자녀들과 함께 통일안보체험을 다녀오면 어떨까. 겨레의 성역인 국립묘지 현충원과 비무장지대를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나라사랑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국립서울현충원 임정묘역

해설과 함께하는 현충원 탐방 국립서울현충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이 안장되어 있는 국립묘역. 우리나라에는 서울과 대전에 있는 국립현충원과 국립민주묘지 등 8개소에서 이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특히, 6월 6일 현충일에 거국적 추념행사가 열리는 국립서울현충원에는 43만여 평에 달하는 성역에 16만5천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다. 구한말 의병들을 비롯하여 조국 광복을 위해 투쟁한 애국지사, 민족의 번영을 위해 평생을 바친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시신은 찾았으나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용사 7천여 명도 납골당에 모셔져 있다.

이들의 충의와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기릴 수 있도록 국립서울현충원은 '해설과 함께하는 현충원 탐방'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원수, 임시정부요인,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장군 등의 묘역 순례와 동, 서, 남, 북 4 방향을 수호한다는 의미를 지닌 현충탑 참배, 유품전시관 관람까지 총90분간 이어진다. 4~6월, 9~11월 매주 목, 토요일 오후 2시부터 1회 운영하며, 비오는 날이나 6월 1~10일까지 현충일 주간에는 운영하지 않는다(문의 ☎02-811-6346).

국립 묘역이 있는 대전에서도 오는 6월 10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나라사랑 보훈스쿨'을 연다. 호국영화 '불개 천둥이, 할아버지의 토시' 상영과 '나의 호국영웅 묘소 돌보기' 등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 참가 희망자는 오는 6월 8일까지 1365자원봉사 포

국립서울현충원 묘역



국립서울현충원 총무정



털 사이트에서 '제2회 나라사랑 보훈스쿨(2차) 호국캠페인 및 환경정화활동' 봉사활동 신청을 하면 된다(문의 ☎042-718-7114).

안보관광의 메카, DMZ DMZ안보관광버스·DMZ트레인

서해안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안의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총길이 248km의 군사분계선은 남과 북을 가르는 유일한 분단선이다. 이 선을 중심으로 남북은 2km씩 후퇴해 군사적 완충지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군사적 비무장지대 DMZ(Demilitarized Zone)의 약자라고 부른다.

한반도에서의 DMZ는 1950~1953년 진행된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의해 조성된 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상징물이자 생태계의 보고로서 의미가 깊은 곳이다. 최근에는 안보관광으로 DMZ가 새롭게 조명되며 버스, 열차 등 다양한 안보관광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는 셔틀버스를 타고 DMZ를 둘러볼 수 있다. 비무장지대에서 가장 가까운 임진각 관광지~제3땅굴~도라전망대~도라산역을 둘러보며 안보를 체험을 하게 된다. 총길이 1,635m의 남침용 땅굴인 제3땅굴, 경의선 남측 최북단역인 도라산역에서는 남방한계선 철책도 직접 볼 수도 있다. 임진각 관광대표소(☎031-954-0303)에서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선착순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방문이 가능하다(문의 ☎031-953-4744).

코레일 '평화열차 DMZ트레인'은 DMZ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임진각 평화통일 기원 리본

로 떠나는 유일한 열차다. 월요일과 주중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0시 6분 용산역을 출발하여 능곡역과 문산역을 거쳐 민통선에 위치한 도라산역까지 운영된다. 분단의 현장인 임진강 철교를 지날 때 보이는 풍경은 DMZ트레인에서만 볼 수 있는 포인트 열차는 평화실, 화합실, 사랑실 등 총3량을 운행하며, 카페, 전망석, 포토존, 사진갤러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갤러리에는 전쟁, 생태, 기차를 테마로 150여 장의 사진이 전시돼 있으며, 카페에서 판매하는 전투식량, 끊어진 철조망 등도 볼거리다. 가격은 2만원선(문의 ☎031-953-3334).

전쟁역사를 체험하고 배우다 전쟁기념관 어린이박물관

전쟁기념관 어린이박물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역사를 콘텐트로 하는 어린이 박물관이다. 어린이들에게 전쟁의 교훈을 새기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자 문을 연 이곳은 전쟁역사를 학습하는 체험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고대부

스펀지로 쌓는 성벽쌓기 체험



지도조각 맞추기

터 6.25전쟁까지의 전쟁역사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구성돼 있으며 전시와 체험시설, 영상실, 어린이창작코너, 야외놀이터가 마련돼 있다. 성곽 형태로 꾸며진 '전쟁역사 속으로' 코너에서는 작은 성문마다 역사 속 전쟁영웅 을지문덕, 김유신, 이순신 등을 동화책과 영상으로 만난다. 일본군 위안부의 아픔을 다룬 '무궁화 할머니', 3.1 운동 만세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태극기 흔들기 체험' 등도 상설 전시로 운영된다. 이 외에도 국난극복 역사를 연극놀이 형태로 배우는 등 10여 개가 넘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선조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체험할 수 있다. 야외전시장에서는 6.25 전쟁 때 유엔군이 사용한 주요 무기와 베트남전쟁에서 활용됐던 군사장비 160여 점을 둘러볼 수 있다. 어린이박물관은 매주 월요일 휴관이며 입장료는 무료다(문의 ☎02-709-3200).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가족체험 행사에도 주목해 보자. 전쟁기념관에서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초등 가족만들기 체험 '응답하라, 신호연'을 연다. 이번 행사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통신수단으로 사용했던 31가지 전술비연(신호연)에 대한 학습과 서울시 무형문화재 4호 이수자와 함께 하는 방패 연 만들기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무료이며 전쟁기념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문의 ☎02-709-3139).

통일공원 안보전시관 야외전시장비



평화통일을 염원하다 강릉 통일공원

강원도 강릉 안인진과 정동진은 1996년 북한 무장간첩이 최초로 침투한 곳이자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전쟁 때 북한군이 최초로 남침해 상륙한 지역이다.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비극을 모두 간직하고 있는 이곳에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무장간첩 사건 5주년을 맞아 통일공원을 조성했다.

이곳에서는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안인진리 해안으로 침투하다 좌초된 북한 잠수함과 북한주민들이 남한으로 탈출해 올 때 타고 왔던 목선 등이 전시된 함정전시관을 둘러볼 수 있다. 또한 국내 육·해·공 3군의 군사 장비를 한 곳에 모아 둔 안보전시관도 볼거리다. 특히, 산과 바다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벗삼아 안보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이곳만의 장점이다(문의 ☎033-640-4470).

통일공원 안보전시관 공군안보단지



알아두면 유용한 교육민원



Q 2017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17년 5월 17일 (수) 오전 9시~2017년 6월 14일 (수) 오후 6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되며, 신청기간 내 24시간 동안 신청 가능

• 신청 대상자 : 재학생, 신입·편입·재입학생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Q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된 학교폭력 관련 내용은 언제 삭제되나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95호)제18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I)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2년 이 지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Q 2014년 대학을 입학하였으나 군문제 등으로 휴학하고 2017년에 복학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경우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은 어떻게 적용 받는 건가요?

2학년 때 선발하는 것이 원칙인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입학한 학년도와 상관없이 “교직과정 선발년도 -1”을 교직과정 이수자의 입학년도로 해석합니다.

이에 2014년 입학자가 휴학 후 2017년 2학년으로 복학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경우, 2016년(2017년-1)을 입학년도로 해석하며,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관련 교육과정 등 무시험검정은 2016년 입학자에 해당하는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등이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등

명예기자 리포트



교사, 학부모, 대학생 등 교육에 관심과 열정이 넘치는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들이 생생한 교육현장의 소식을 전합니다. 현장의 눈으로 바라본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맘과 희망으로 써내려간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편집실>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에서 명예기자들의 기사 전문과 생생한 교육이야기를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소리로 마주보는 세상

지난 5월 20일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위치한 명현학교 잔디 운동장에서는 ‘소리로 마주보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영화음악제가 개최되었다.

이날 진행된 1부 행사는 명현학교에서 올림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영화음악제와 더불어 사전에 각종 체험활동(승마체험, 컵과 열쇠고리 만들기, 뉴스포츠, 체성분 검사 등)을 계획하여 마을 주민이 무료로 체험하여 학교와 지역주민들의 진정한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거듭난 행사가 되었다.

‘밝고 건강하게’라는 교훈을 중심으로 모인 세파에도 굳건히 견디는 소나무와 모두를 사랑으로 감싼다는 의미의 장미를 교목과 교화로 삼고 있는 명현학교가 특수학교로서 먼저 지역주민을 향해 내민 손과 그 손을 잡고 함께 이 행사를 아름답게 만들어 준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끼게 해준 행사였다.

“우리가(특수학교) 먼저 지역 주민들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이



야 말로 마을과 함께하는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고 말한 명현 관계자의 말대로 오늘 서로 맞잡은 두 손을 꼭 잡고 놓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았다.

한명숙 명예기자(수원서광학교 교감)

「외국인 유학생 장기자랑 경연대회」



지난 5월 13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송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법무부가 주최하고, 송실대학교가 주관하여 외국인 유학생 장기자랑 경연대회가 열렸다.

제10주년 세계인의 날을 맞이하여 국내에 유학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어학연수생들을 대상으로 숨은 재능을 뽐내고 활기찬 유학생생활이 될 수 있도록 문화적 소통과 함께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장을 조성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방송인 아비가일 알데레떼, 한건희가 사회를 맡았고, 춤, 노래, 퍼포먼스 등 다양한 행태의 장기자랑을 선보였다. 작년 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팀인 Young Motivators가 탄자니아 전통 노래인 'Jambo, Jambo Bwana'로 초청공연을 하였고, 송실대학교 스포츠 학부 동아리에서 스피닝, A-Jack 퍼포먼스 팀에서 난타 축하 공연을 하였다. 올해는 공작새팀(중국)의 중국 전통 2인 공작새 퍼포먼스로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병찬 명예기자(한국기술교대 대학생)

광주광역시 도서관 문화마당



햇살이 싱그러운 4월 29일 광주광역시청 문화광장에서는 책 내음이 가득한 도서관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역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독서단체, 출판사 등이 함께 한 이번 행사에는 46개의 기관이 참여해 멋진 독서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봄봄!! 책을 봄! 도서관을 봄!'이란 주제에 맞게 부스마다 다양한 도서 관련 체험과 책 놀이, 공연도 이어져 즐거운 봄 축제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현장 체험만으로도 자원봉사 활동 점수가 주어졌고, 김성범 작가의 '도깨비 도서관'과 '도전 독서 골든벨'에는 가족 단위 참여로 화목한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6년째 맞는 이번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했다는 한 학부모는 "도서관 축제가 즐거워 매년 아이들을 데리고 찾는다. 평소 책을 즐겨하지 않더라도 이곳에 오면 저절로 책과 친구가 될 수 있다. 책 좀 읽으라는 잔소리보다 더 효과 만점이다."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습니다.

박현숙 명예기자(울곡초 사서)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대구시교육청은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을 통해 제3기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를 모집하였다. 그 결과 50여 명의 교사를 선정하고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연수를 실시하였다. 연수는 원격연수과정 30시간과 집합 연수 5시간 등 모두 35시간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세계시민교육이란 유엔이 연구한 글로벌 시대 학생맞춤형 교육의 변화 패러다임으로 자기주도적 교육, 공감, 배려, 경청의 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등 미래 사회의 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의 새로운 프로젝트이다.

김민중 명예기자(대구다사초 교사)

우리글 알고 익히기를 도와줘요



대구광역시립 북부도서관은 2017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방문 강사교육을 지난 4월 24일 본 도서관 2층 1강의실에서 실시했다. 다문화 학생들의 국어 사용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다문화 학생지도 강사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지도 방법 및 자료 제작 교육을 하였다. 교육 강사 16명은 대구 북구지역 다문화가정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1시간씩 주2회, 총40회를 교육한다. 방문지도는 그 가정의 특성이나 가족구조, 생활 풍습, 환경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 가정에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다문화가정의 부모의 모국어에 대한 지도를 곁들여 하여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강점도 얻을 수 있다.

김영근 명예기자(퇴임교장)

맞춤형 테마연수, 기지개를 펴다



지난 5월 18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경기도 외국어 교육연수원에서는 2017년 공모연수 운영자 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운영자 협의회에는 경기도 외국어 교육연수원 공모연수 운영자 21개 팀에서 17개 팀의 운영자들 대표가 참석했다.

공모연수는 작년부터 시행된 맞춤형 테마연수로 학생 중심·현장중심의 수업 혁신을 위하여 현장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연수 테마를 교원들이 스스로 발굴하여 기획·운영하는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이다. 경기도 외국어 교육연수원에서는 2017 상반기 공모연수(30차시 운영)에 21개 팀이 공모하여, 행복을 꿈꾸는 인성교육연구회 외 16개 팀을 선정하였다.

전우열 명예기자(왕산초 교사)

교사들은 서로를 얼마나 알고 있나요?



학생과 수업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하고, 학교의 방향과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로서 교사들 간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업무와 수업에 바빠 서로 마주 보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기도 하고, 교무실이 달라 때로는 1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서로 이야기 한번 못한 관계가 있게 되기도 합니다. 발곡고등학교에서는 교육 공동체 형성을 위해 교사 간 따뜻한 관계와 행복한 시간을 만드는 '나와 남을 이해하는 드라마 치료와 애니어그램 연수'와 '교사 체육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지필평가 기간을 이용하여 2일간 진행된 연수에서는 '드라마 치료'를 통해 학교, 가정에서의 갈등상황을 재현해보며, 서로의 관계의 방향, 거리, 위치를 파악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는 한편, 서로의 입장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강병희 명예기자(발곡고 교사)

섬 학생들의 외침! 나도 시인이다



전남 신안군에 소재한 임자고등학교는 작년년부터 교실수업 개선프로젝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올해는 학생들의 미래 꿈을 이루기 위해 '나'를 주제로 여러 활동을 계획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시작은 고3학생들의 시집 발간이다. 15명의 학생들이 제작한 5편의 시와 담당선생님인 오창의 선생님의 시 1편, 총76편의 시가 실린 이 시집은 '과거의 나로 떠나는 타임머신 문학시집' 제목으로 학생들의 우정, 사랑, 가족애 등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박안석 교장선생님은 "후회되는 것 아쉬운 것, 좋았던 것들을 회상하며 자기 삶의 조각을 하나씩 맞춰나가다 보면 어느새 제법 자기만의 색을 뽐내는 아름다운 삶의 모양이 완성되리라 믿습니다. 정규교육과정의 마지막 문턱에 서있는 여러분들의 위대한 도전과 열정을 응원하며, 이번 시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작게나마 한 조각으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조수원 명예기자(임자고 교사)

우리소리 배우는 즐거운 국악소풍



경북 자천초는 국립민속국악원(남원)에서 진행되는 '즐거운 국악소풍' 체험사업에 참가했다. '즐거운 국악소풍'은 산간 오지나 도서벽지의 문화

소외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소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해 마련되어 국악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소외 농어촌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체험사업이다.

국악소풍은 매해 1박 2일 동안 광한루원, 항공우주천문대 등 남원 일원 문화탐방과 국악공연관람, 난타와 강강술래 감상 등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엄선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습비, 입장료, 숙식 등의 제반 경비를 모두 국비로 국립민속국악원에서 부담하는 사업이다. 무엇보다 국악 체험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었다.

조동욱 명예기자(자천초 교사)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및 환경정화 활동



광주광역시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이하여 5월 정신을 계승하고 참여하기 위한 국립 5·18민주묘지 환경정화활동을 5월 11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참배(헌화, 분향), 묘비 닦기, 잡초제거 등의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묘비 사진들을 보니 중학생 가까머리 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먹먹함이 다가왔다. 광주시민의 고통인 그날이 다시 상기되면서 한국 땅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올해 37주년 행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제창하여 의미를 더하고 있다.

김미경 명예기자(광주상일중 영양사)

김미경 명예기자(광주상일중 영양사)

하나 되어 달리는 거북이마라톤대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충북 제천에서 거북이마라톤대회가 열렸다. 16번째를 맞는 이 대회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려 달리며 서로를 이해하는 장으로 청암학교가 주최하였다.

청암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특수학급 소속 장애 학생, 비장애학생, 자원봉사자, 군인, 경찰 등 400여 명이 서로 도우며 달리기를 완주하였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음료대를 설치하여 지친 학생들을 응원하였다. 이 대회는 역사가 더해질수록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리는 마당이 되고 있다. 이 대회는 장애학생에게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고, 비장애학생은 장애의 벽을 허물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민규 명예기자(제천청암학교 교사)

재미있는 동물매개치료 체험



지난 5월 13일, 경산시에 있는 창파유치원에서는 (사)창파동물매개치료연구센터(센터장 이예숙)와 대구미래대학교 동물매개재활과와 함께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치원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동물매개치료 체험을 실시했다. 유아들은 우선 동물들에게 간식을 주고, 쓰다듬고, 이름 부르기 등을 통해 동물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진 후 매개치료동물들의 장기인 장애물경주와 프리스비(원반 던지기) 등을 직접 해보았다. 평소 동물을 무서워하거나 유치원 생활에 소극적인 아이들도 이날은 동물매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동물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창파유치원은 2014년부터 '재미있는 동물매개치료 체험'을 실시하여 원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2015년에는 전국 최초로 동물매개치료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도입했다. 어린 시절부터 동물 사랑과 생명 존중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운다면, 여러 분야에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현우 명예기자(울진고 교사)

하현우 명예기자(울진고 교사)

팝아트로 그린 "스승의 은혜"



대구시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성광중학교에서 팝아트로 그린 '스승의 은혜전'이 열렸다. 팝아트를 이용하여 그려진 평소 존경하는 선생님의 초상화가 5월15일(월)~31일(수)까지 1층 교내 중앙현관에서 전시되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디지털시대에 빠른 것만 강조하는 인터넷 매체에 익숙한 아이들이 조금 느리지만 정성이 들어간 메시지로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다는 의미도 있다.

지도교사인 양지혜 미술교사에 따르면 2학년 미술수업 중 팝아트를 응용하여 작품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으며 평소 수업시간에만 보던 선생님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 특징을 살려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선생님에 대한 친근감과 존경심을 자연스럽게 쌓아갔다.

신재일 명예기자(국민안전처 행정사무관)

우리는 꿈빛 스타!



대구논공초등학교는 매월 2회, 금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꿈빛스타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꿈빛스타 발표회는 전교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진행되는 학생 주도의 소규모 공연 행사로 전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점심식사 후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시청각실에서 펼쳐진다. 대회 3~4팀의 소규모 공연으로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므로 많은 학생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여 자신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뽐내며, 다른 학생들은 자유롭게 관람하며 공연하는 학생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학기 초 학생들 스스로 발표회에 참가할 종목을 정하고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발표회에 참가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된 재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 정해진 공연일까지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하여 무대에서 발표하게 함으로써 자신감을 기르고 효과적으로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도 함께 키워가고 있다.

김광일 명예기자(대구논공초 교사)

김광일 명예기자(대구논공초 교사)

네덜란드의 관공서 오픈 하우스



네덜란드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해 소방서, 경찰서, 시청 등을 개방하는 날(Open dag-'오픈 다흐'라고 함)이 있다. 예약 없이 누구나 정해진 시간에 가서 관공서를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공공기관 탐방을 통해 어린이들은 직접 관찰, 체험하면서 이 기관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배우게 된다.

소방서 오픈 하우스 날에는 고압 살수기를 들고 불 끄는 체험, 소방차 및 구급차 타기, 교통사고 난 차량의 문 절단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경찰서의 경우에는 취조실, 유치장 견학, 경찰차 타기, 경찰견을 이용한 범인 체포하기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시청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분야, 예를 들면, 직장, 소득, 복지 등에 관한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날에는 어른들을 위한 커피와 차는 물론 아이들을 위한 기념품과 음료수가 준비되어 있기도 하다. 이런 날이 정기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2년에 한 차례 돌아온다. 이에 관한 정보는 매주 집집마다 배송되는 지역 신문이나 SNS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관공서 오픈 하우스를 통해 어린이들은 우리 이웃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 경찰관을 만나 직업 탐색의 기회를 갖기도 하고 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박소영 명예기자(네덜란드 거주 학부모)

박소영 명예기자(네덜란드 거주 학부모)

"시흥교육의 미래 비전을 듣는다"



올해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장덕진 교육장은 "학교현장 속으로 들어가 혁신교육 및 학교 민주주의, 교육행정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지난 1년 숨 가쁘게 달려온 현장교육의 소감을 밝혔다.

Q 취임 1년 동안 시흥교육 현장을 지켜보시며 느낀 소감은 무엇인가요?

시흥은 신흥도시 중 하나로, 주민의 대부분이 젊고 교육열이 높으며,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청 및 지자체의 협력이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 시흥교육지원청의 주요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기교육의 중심은 "학생과 현장"이며, 모든 학생이 잠재력을 개발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평한 학습사회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를 위하여 교사가 중심이 되어 학생의 성장을 돕고, 학교가 중심이 되어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Q 시흥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시흥교육지원청의 중장기적인 미래 방향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시흥교육지원청의 중·장기적 교육환경개선 사업인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 학교시설의 기능 및 성능회복', 시설안전에 관한 '법적·무시설 보완 및 유해시설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호섭 명예기자(보정초 행정7급)

1인 미디어시대

‘미디어콘텐츠창작자’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연출, 촬영, 편집해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일을 한다. BJ(Broadcasting Jockey,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 유명한 대도서관, 양띵, 뽀빠지 등이 미디어콘텐츠창작자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단순히 취미로 인터넷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인터넷 방송 채널을 운영해 방송 구독자 수와 시청률에 따른 광고 수익을 얻는 ‘직업’으로 주로 혼자 영상 제작과 진행을 도맡아 하는 편이지만, 최근 미디어 콘텐츠 전문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팀을 이뤄 활동하기도 한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유튜브 스타들 중에는 연간 수십 억 원에서 수백 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콘텐츠창작자들이 존재한다. 국내 미

디어콘텐츠창작자가 활동하는 주요 매체는 유튜브, 아프리카TV,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아프리카TV는 2006년, 국내 유튜브 서비스는 2008년, 국내 페이스북 서비스는 2010년에 오픈하였는데 이때부터 자신만의 개성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올리는 사람들이 활동하기 시작했다.

초반에는 취미처럼 영상을 올리는 수준이었고, 2013년 이후 본격적으로 콘텐츠 제작을 통해 광고 수익 등을 얻는 창작자들이 나타났다.

영상의 주제는 게임이 많은 편이고 요리, 뷰티, 노래, 유머, 춤, 각종 실험, 장난감 놀이 등 다양하며 BJ도 젊은 층을 넘어서 70대 할아버지, 일반인, 연예인까지 폭이 확대되고 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자가 하는 일

- ☑ 찍고 싶은 영상 관련 주제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제와 내용을 정리해 세부적인 대사, 출연진, 촬영도구 등을 직접 기획, 구성한다. PD, 배우, 작가의 역할을 총망라하여 수행한다.
- ☑ 지상파 방송과는 달리 제작과정이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리허설 등의 연습은 생략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촬영에서 대사나 연출방법 등을 바로 수정하여 촬영한다.
- ☑ 촬영은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다른 사람이 도와줄 경우 촬영을 담당하는 PD와 영상 연출에 대해 논의하고 촬영에 들어간다.
- ☑ 편집 및 영상 업로드 작업을 한다.
- ☑ 개별 채널을 유지, 운영하면서 구독자를 확보하고 플랫폼 사업자와의 광고수익을 공유해 수익을 창출한다.

참고사이트
아프리카TV www.atreeca.com
CJ E&M Dia TV www.diatv.com
유튜브 www.youtube.com

참고문헌
한국고용정보원 『미래를 함께 할 새로운 직업』
한국고용정보원 『2016 우리들의 직업 만들기』



적합한 사람은?

자신의 콘텐츠를 홍보하고 이를 통해 광고수익을 올려야 하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를 가진 사람이 적합하다.



필요한 자격은?

특별한 자격증은 없으며, 영상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진출이 가능하다.



필요한 공부는?

학력이나 전공과는 무관하다. 기획, 연출, 촬영, 편집 등을 혼자 처리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어디서 준비하나?

특별한 교육기관은 없다. 독학으로도 가능하고 몇 번 해보면서 익숙해지는 편이므로, 별도의 특별한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



활동 영역 및 진출 분야

유튜브에 영상콘텐츠를 업로드하여 광고수익을 올리기 시작한 것은 2013~2014년부터다. 그동안은 취미를 영상으로 올리는 수준이었으나 점차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주제의 영상을 제작해 올리면서 유튜브에 연계된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현재는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MCN(다중채널 네트워크) 기업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창작자가 늘고 있다. 아프리카TV 소속 BJ, CJ E&M의 Dia TV, 트레저헌터, 비디오빌리지 등으로 활동 중이다.



전망 point

현재 활동 중인 창작자들 중 일부는 이미 전문 방송인 못지 않은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모바일 환경이 좋아지고 새로운 영상 콘텐츠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많은 구독자를 가진 예비 창작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수요의 증가에 따라 대기업의 사업 참여로 인해 활동의 장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MCN 콘텐츠를 제작할 때 기존 방송 영상의 제작방식을 고수한다면,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기존방송을 답습하기보다는 MCN 영상에 특화된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며, 취미활동이 아닌 직업으로의 정착을 위해서는 대중적 전환 인식도 필요하다. ②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노하우②

‘진로희망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록은 이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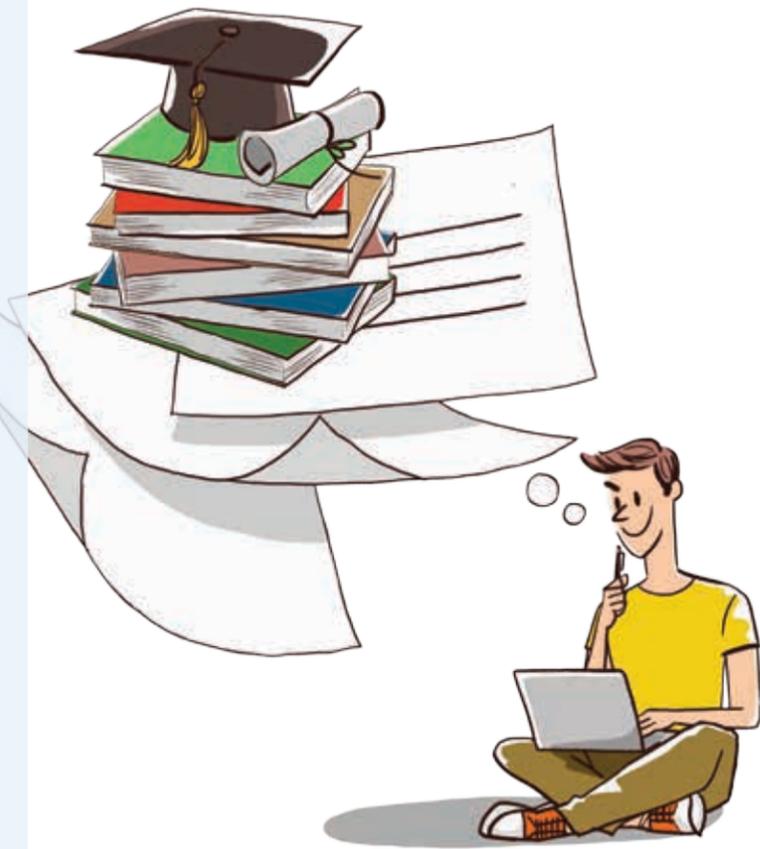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196개 4년제 대학교의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모집인원은 34만 8834명으로 2018학년도보다 3491명 감소했지만, 수시모집 비율은 전년 대비 2.5%p 증가한 76.2%로 매우 높다. 특히,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모집인원은 8만4764명으로 1533명(24.3%) 증가했다. 즉, 학종의 중요성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학종은 학교생활 기록부(학생부) 기록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전형이다. 평가자(교수, 입학사정관)들은 학생부 여러 항목 중에서도 학생의 총체적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종합의견)’과 모집단위 지원동기가 드러나는 ‘진로희망사항’을 중요하게 본다.

충분한 상담 통해 진로 희망 사유 기재

올해부터 학생부 6번 항목 진로희망 사유가 개선된다. ‘특기 또는 흥미’, ‘진로희망 학부모’란 삭제는 2017학년도에는 중·고등학교 1학년, 2018학년도에는 중·고등학교 1~2학년, 2019학년도에는 중·고등학교 전 학년에 적용된다.

‘진로희망’은 학생의 진로설계 및 변경 등을 고려하여 관심 분야나 희망 직업을 기재하고, ‘희망사유’에는 충분한 상담과 관찰을 통해 진로희망 사유를 기재한다. 학기 중에 진로지도를 하여 파악한 학생의 진로 희망과 희망 사유를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단, 담임교사 외 진로교육 담당자의 자료가 있으면 이를 받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기 또는 흥미’는 특정 사물의 명칭을 그대로 입력하거나 포괄적 개념의 용어로 입력하지 않고 구체적인 용어나 구체적 행동과 관련된 용어로 입력한다. ‘진로희망’은 희망 분야나 희망직업을 입력한다. ‘희망사유’는 학생의 희망직업에 대한 진로선택 동기, 이유, 계기 등을 입력한다.

진로희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좋다. 예컨대 의사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의사-외과의사-흉부외과의사’처럼 작성하면 된다. 하지만 반드시 위계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아도 되며, 지원하는 모집단위에 진로희망을 억지로 맞출 필요도 없다. 진로희망이 바뀌어도 상관없다. 청소년 시기에 진로희망사항은 당연히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자는 지원자의 진로희망이 지원 분야와 연관성이 적어도 공부 동기, 과정, 결과로 우수성을 확인한다. 진로희망이 변경된 경우 변화하게 된 과정 혹은 타당한 사유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 특기사항’이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설득력 있게 기록하면 된다.



현장의 교사들은 학종이 생긴 이후 학생부 기록 부담이 매우 커진 것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적자생존’이라는 우스갯소리처럼 학생부에 적혀 있어야 학종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말을 새겼으면 좋겠다.

자기소개서(자소서)와 추천서 활용도 가능하다. 평가자는 진로희망의 일관성 못지않게 변화 과정의 타당성과 학생의 진정성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또한, 많은 대학이 자소서 4번 자율문항을 통해 지원 동기를 확인하는 데 진로희망 사유를 통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 동기와 관련한 4번 문항이 없는 대학도 있어서 진로희망 사유 내용을 잘 기재하여 활용해야 한다. 담임교사는 진로희망이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변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진로희망을 학기말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1년간의 행동특성, 총체적인 변화와 성장 기록

학생부 10번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학생의 학습, 행동 및 인성 등 학교생활에 대한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하는 항목이다.

학생부 항목의 같은 내용들을 반복 기술하기보다는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1년간의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인 학생의 변화와 성장 내용을 기록해주어야 한다. 다른 항목에서 누락된 내용을 기재하고 중요한 활동에는 의미를 부여해 강조해주는 최종적인 정리역할을 해주면 좋다. 구체적인 사실과 활동을 나열하기 보다는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 배움과 성장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다. 인성 등의 정성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학업역량의 발전과정을 볼 수 있는 정량적인 내용도 기록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자가 종합의견만 읽고도 충분히 지원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추천서라고 생각하고 총체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 교사 추천서와 자소서를 받지 않고 학생부만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하는 대학도 있으므로 더욱더 신경 써서 기록해야 한다. 화려한 스펙이나 활동의 나열보다는, 학생이 ‘개별화’, ‘구체화’되어 드러나야 한다. 추상적이고 상투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으로 사례를 중심으로 기재할 것을 권한다. 학생부 전체 항목이 제시하는 학생 개인에 대한 총체적 정보가 종합의견에 기록되는 것이 핵심이다.

끝으로, 현장의 교사들은 학종이 생긴 이후 학생부 기록 부담이 매우 커진 것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적자생존’이라는 우스갯소리처럼 학생부에 적혀 있어야 학종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말을 새겼으면 좋겠다. ‘기록이 기억을 이긴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②

3회에 걸쳐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노하우를 소개합니다.

- ①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편
- ② ‘진로희망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편
- ③ ‘창의적 체험활동’ 편

감정 조절에 능숙한 아이로 키우기

공부를 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요소를 꼽으라면 그 첫째로 감정 조절을 꼽을 것입니다. 초기의 공부 전문가들이 주로 화내지 않고 칭찬하며 공부를 시키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유는 감정만 다스려주어도 성적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 조절이라는 것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아이를 사랑으로 대하고 마음을 읽어주어도 친구에게 상처받고, 형제끼리 질투하고, 부모에게 화를 내고, 공부하기 싫다고 난리를 부립니다. “진정 좀 해”, “너 진짜 계속 이럴래?”로 이어지는 대화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감정 조절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5단계 기술

감정 조절을 잘하기 위해서는 총 5단계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가 **상황 선택 단계**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나와 같이 놀던 친구가 다른 친구와 같이 급식을 먹으러 갑니다. 이 상황을 ‘저 아이가 나보다 00이를 더 좋아하는구나.’라고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 당연히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것입니다. ‘나랑 같이 안 가니까 서운하네. 하지만 급식

을 저 친구랑 먹는다고 나를 싫어한다고 할 수는 없지.’라고 이해한다면 한결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함께 그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감정을 먼저 표현하게 해주고 공감하는 작업이 꼭 선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황 조절 기술**입니다. 현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대안을 생각하고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을 찾는 단계입니다. 앞의 예에서 보면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다른 친구와 급식을 먹으러 가는 것이 싫으면 미리 오늘 급식은 나랑 먹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명하고만 가지 않고 여럿이 모여서 먹으러 감으로써 만에 하나, 혼자서 급식을 먹는 상황을 막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조절을 위한 방법들을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는 대화를 가져보세요. 가능하면 먼저 제안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해 내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전환 기술**입니다. 마음속에서 생겨난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친구 관계에 신경을 쓰다가 시험 때가 되면 스트레스가 훨씬 적어지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하자’라고 주의를 전환시키는 기술, 또 기분이 나쁠 때 기분을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부모와 함

자녀와 자꾸 감정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일단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일은 매우 이성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에는 이러한 기술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께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현재 일어난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그래야 직면한 문제에 대한 감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아이는 성격이 누구와 밥을 같이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편인가보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마음이 편하겠지요. 이런 걸 너무 심하게 사용하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정신 승리’가 되겠지만 현재 상황을 나쁜 쪽으로만 이해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반응을 바꾸는 일**입니다. 예전에 있던 일이라도 내가 반응을 다르게 하면 결과가 달라지

고, 결과가 달라지면 그 일에 대한 감정도 달라집니다.

친구가 다른 친구와 급식을 먹으러 가면 슬퍼하거나 토라지는 대신, ‘잠시 숨을 고르고, 다른 친구와 급식을 먹으러 가서 그 아이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반응이 독립적이고 강해 보여 오히려 호감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 자꾸 감정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일단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일은 매우 이성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에는 이러한 기술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㉔

신음하는 대지와, 침묵하는 신

글. 홍정선 인하대 한국어문학과 교수(전 『문학과지성사』 대표)

20세기에 벌어진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이전의 어떤 전쟁보다도 참혹하기 그지없는 전쟁이었다. 지상의 탱크와 화학무기, 바다의 잠수함과 항공모함, 하늘의 로켓과 비행기, 그리고 원자폭탄에 이르기까지 비약적으로 발전한 첨단무기와 대량살상무기들은 우리 인류의 지혜와 과학문명의 발전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데 아낌없이 동원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인간의 이성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재앙이었고, 과학문명의 발전에 환호하던 사람들에게도 재앙이었다. 역사의 발전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재앙이었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자비로운 하나님을 믿었던 기독교인들에게 재앙이었으며, 무엇보다 무고하게 죽어간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끔찍한 재앙이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와 김은국의 『순교자』

까뮈, 사르트르 등의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양차 세계대전의 이러한 끔찍한 재앙 속에서 탄생했다. 대지에 가득 찬 인간의 신음소리와 그 신음소리에 침묵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목도하면서 니체의 “신은 죽었다”는 외침을 이어받았다. 그리하여 까뮈는 『페스트』에서 신이 없는 세상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고 사르트르는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에서 신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인간, 그래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인간의 모습을 제시하며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들과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이 땅을 뒤덮은 우리민족의 불행과 그 불행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하나님의 태도를 겪으면서 『순교자』라는 소설을 통해 “누가 과연 진정한 순교자인가?”라는 난감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다.

김은국의 『순교자』는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을 수복한 1950년 10월을 소설의 배경으로 하고 있다. 소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렇다. 6·25전쟁을 시작하기 직전 북한의 비밀경찰은 평양에서 열네 명의 목사를 체포하여 열두 명은 총살했고, 두 명은 죽이지 않았다. 열 두 명의 처형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문 신

목사와 미쳐버린 한목사가 바로 그 두 사람이다. 국군의 평양 입성 후 정보처 평양 파견대의 장대령은 목사 살해 사건을 공산당의 만행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라 생각하고 열두 명의 목사를 ‘순교자’로 모시는 추도예배를 계획한다. 그리고 소설의 화자인 ‘나’(이대위)에게 생존자 중 한 명인 신목사를 찾아가 사건의 진상을 알아내라는 임무를 맡기지만 신목사는 자신은 현장에 없었다며 완강하게 진술을 거부한다. 그런데 방첩대가 체포한 북한군 정소좌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그는 총살한 열두 명은 “꼭 개새끼들같이 훌쩍거리고, 킁킁거리고, 엉엉 울면서” “자기네 신을 부정”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살려준 두 사람 중 한목사는 미쳤기 때문에 신목사는 유일하게 당당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진실을 알게 된 나는 신목사에게 진실을 털어 놓으라고 집요하게 설득한다. 그렇지만 신목사는 그를 유다로 지목하는 신도들로부터 안전을 위협받으면서도, 인간의 불행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불행한 사람들, 희망을 잃은 교인들을 더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하며 고뇌를 거듭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신목사는 교인들 앞에 나서서 놀라운 행각을 벌이기 시작한다. 자신이 처형의 현장에 있었으며 유다였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거짓말을 하고 열두 명의 목사들은 의연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죽어갔다고 증언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열두 명의 순교자들은 하나님을 버린 자신까지 따뜻하게 위로하며 용서해 주었다고 증언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간의 나약함과 위대함에 대하여

기독교의 입장에 따르면 이 세상은 신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 창조됐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고 예정해 놓은 목표-사르트르는 바로 이것을 부정하고 인간에게 자유롭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했다-에 따라 움직인다. 이러한 기독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의지가 관철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한다. 그렇다면 전쟁의 참화와 인간의 불행도 하나님의 의지인가? 우리 어리석은 인간을 깨우치려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숨겨진 사건인가? 김은국의 『순교자』에서 신목사 역시 이 같은 인간의 의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면서도 그가 걸어간 길은 누구보다도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이자 순교자의 길이였다. 그가 걸어간 길은 그레이엄 그린의 『권력과 영광』이 그려놓은 위스키 신부의 모습처럼 인간의 고통과 죄악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길이었으며 그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위대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②

학교급식 잔반 줄이는 딱 좋은 방법

5대 영양소 짝꿍 채워 준비한 학교급식. 하지만 편식쟁이 우리 아이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음식을 남기기 일쑤입니다. 학교에서도 잔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식단을 짜 잔반 없는 날 운영, 생선을 먹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생선 퓨전음식, 즉석 철판삼겹살 등 잔반을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가 넘치고 있습니다. 잔반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아봤습니다.

우리학교는 교실배식을 하기 때문에 급식당번이 필요하답니다. 고학년을 맡고 나서 자율배식에 도전해 보았는데요. "우리 반은 1년 동안 점심시간에 '점심 뷔페'가 교실에서 열린다"라고 홍보하였어요. 1년 내내 쓸 수 있는 현수막 같은 게 있으면 더욱 시각적, 심리적 효과가 크겠죠?

사전에 아이들과 회의를 통해서 규칙을 몇 가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싫어하는 음식도 조금이라도 받기, 맛있는 음식은 뒷사람을 위해 배려하여 양을 정해서 받기 등 아이들끼리 토의를 통해서도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온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낭비에 대한 교육,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및 노력 비용, 편식의 문제점 등을 함께 학기 초에 공부해보는 시간도 가지구요. 이렇게 학기 초에 아이들과 충분히 급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자율배식의 취지를 잘 설명하면 의외로 아이들은 스스로 알아서 잘 먹습니다. 놀랍게도 급식당번을 정해서 배식을 할 때보다 잔반도 훨씬 덜 나오더라고요.

신은주 / 평화초 교사



잔반 없는 날 이벤트와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해오고 있어요. 생선을 먹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케라가루를 입혀 잘 먹으면 포상으로 시원한 슬러시를 주어 격려를 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석식으로 철판삼겹살, 닭갈비철판볶음밥을 즉석에서 제공하여 학생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해 주고 저녁식사를 마치고 야간자율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이벤트도 잔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백희 / 학부모

유치원 아이들은 그냥 "먹어보자"고 말하는 것 보다 오늘의 도전미션을 주고 "도전~"하고 구호를 외치면서 먹어보면, 꼭 자기가 도전미션을 성공한 것 같아 더 흥미를 느낍니다. 오늘 반찬 중 버섯구이가 있겠는데요. 버섯의 향을 싫어하는 유아들이 많아서 먹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 반은 버섯구이에 도전~"하고 구호를 외치면 아이들이 도전미션에 성공하기 위해 버섯은 물론이고 다른 반찬들도 살짝 비우게 됩니다. "도전~"하고 친구들과 다같이 외치는 구호 한마디로도 잔반이 확 줄어든답니다.

김효은 / 성저초 병설유치원 교사

우리학교의 노하우는 간식을 이용한 잔반 줄이기! 우리 학교 급식실에서는 학급마다 잔반이 얼마나 남지 않는지를 체크하여 아이들에게 스티커를 준다. 그 스티커를 반별로 모아 잔반 줄이기 목표량에 도달한 반에게는 급식실에서 별도의 간식을 주는 것. 간식은 보통 남은 밥으로 만든 누룽지 한 봉지, 우리밀 과자 등 건강에 좋은 간식들로 급식실에서 업선한다. 개인보다는 우리 학급이 함께 잘 먹어야 하니, 급식시간만 되면 잔반을 남기지 않기 위해 대동단결하는 우리반! 화이팅!

이희욱 / 개일초 교사

학교에서 많이 실천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낮은 나물, 김치류는 학생들의 기호도가 낮은 식품이라 추가 배식대를 운영하여 자율배식을 하면 잔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반별 배식인 경우 후식(음료, 케이크 등)이 나간 후 남은 것을 잔반을 평소에 적게 남긴 반에 올려주면 각 반에 경쟁이 붙어 잔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유림 / 다솔초 영양사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재료 시금치! 잔반 ZERO에 도전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안내합니다. 시금치, 당근, 양파, 베이컨을 잘게 다져 풀어 놓은 달걀에 콩고루 섞어 오븐에 굽는 시금치프리카타타. 시금치를 갈아서 핫케이크가루, 달걀, 버터, 설탕과 혼합 후 오븐에 굽는 시금치핫케이크. 맛도 좋고 색깔도 예쁜 잔반 ZERO 메뉴입니다.

이경희 / 지동초 영양사



급식실에 그린퇴식구(다 먹은 식판)와 레드퇴식구(남긴 식판)로 구역을 나누어 놓고, 한 달에 1번씩 그린퇴식구 앞에서 후식을 나누어줍니다. 후식은 매실차, 유자차 등 계절에 맞게 바꾸어주면 후식을 먹기 위해 아이들이 식판을 싹싹 비운답니다.

정유진 / 성저초 영양교사

대부분의 급식 잔반은 야채 먹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적부터 동물을 키워 본 사람은 동물에 대한 거부감이 없듯이 작은 정원이거나 화분에 몇 가지 야채를 키워 보는 것이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키워 본 야채를 먹는 것이 훨씬 즐거워 지지 않을까요?

임의영 / 학부모

연예인과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중고등 학생들에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연예인 누구는 오이를 먹고 다이어트를 했다~', '연예인 누구는 나물 다이어트를 했다~' 하고 한마디씩 해주면 안 먹던 오이도, 싫어하던 나물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떠올리며 조금씩 먹어보며 잔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박종근 / 학부모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을 잔반 없는 날 '그린데이'라고 칭하고 그날은 잔반통을 놓아두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불평이 많겠지만 모두가 적응해서 수요일 점심시간에는 잔반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담임선생님 협조 및 지도 하에 잔반 줄이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잔반을 체크하여 우수반은 학기별로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년별로 우수반을 뽑아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수요일은 아이들이 좀 더 좋아하는 식단을 넣어 잔반줄이기 효과를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이정현 / 명인초 영양사

편식이 심해 집에서 나물, 김치, 생선 등을 잘 안 먹어 늘 제 애들 먹이던 아이가 학교급식은 너무 맛있다고 합니다. 대체 학교급식은 얼마나 맛있게 나오는 걸까 궁금했는데, 담임선생님의 노하우에 '아하~'하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바로 그 노하우는 선생님의 사랑이 담긴 주먹밥이었죠. 교실에 참기름과 김가루를 비치해두고 남은 밥이랑 나물류나 멸치, 김치 등 비벼먹을 만한 것들이 남으면 가위로 잘게 잘라 교실에서 즉석 주먹밥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것도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착순이다!"라고 하면 서로 나와서 먹기 바빠 금방 동이 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주먹밥을 만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김지윤 / 학부모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사업, 100개교 선정

교육부는 지난 5월 1일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이하 '매직') 사업'의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매직 사업은 작년 4월 25일에 발표된 '중등 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 계획'의 후속 방안으로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직업계고의 매력도를 높이는 질적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학교가 지역여건 및 자체 특성 등을 고려해 스스로 구상한 '매직'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 학교 운영 시스템을 혁신하고 인프라 등을 개선해 매력도를 높임으로써 '가고 싶은 직업계고'를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적으로 284개교가 신청하여 2.84: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학교현장에서 매직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학교 변화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직업계고 혁신을 조기에 확산하기 위해 향후 50개교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 150개 학교가 1단계 매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매직 사업에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인력양성 유형설계 및 교육과정(NCS), 교수·학습 방법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 컨설팅과 전체 교원에 대한 체계적 연수를 제공할 계획이다.

학교기업, 청년들을 위한 취·창업 플랫폼으로 새단장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난 5월 17일 2017년 학교기업 지원사업 신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부터 추진된 학교기업 지원사업은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들의 기업 경영·창업 실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5년 2단계 사업(15~19)에 착수했으며 '17년 단계 평가를 실시했다. 2015년 기준 현재 전국적으로 220개의 학교기업이 설치·운영 중이며, 대학 90개, 전문대 83개, 특성학교 47개 순이다.

올해 예산은 87억 원으로 총 42개(대학 19개/전문대학 16개/특성학교 7개)의 학교기업을 지원하게 되며, 중간 평가를 통과한 29개 학교기업과 신규로 선정된 13개 학교기업은 향후 3년간(17~19) 예산을 차등 지원(대학·전문대 2억 원 내외/특성학교 1억 원 내외)받게 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창업 실습형 학교기업' 선정을 위해 기존의 현장 실습형 학교기업과는 별도의 평가 지표를 마련해 학교기업의 학생 창업 지원을 위한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42개 학교기업의 디자인·마케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학교기업 중 디자인·마케팅 센터를 각각 1곳씩 별도로 선정하여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융합전공·전공선택제 도입, 창의혁신인재 양성 기반 마련

융합전공제 도입, 다학기제·집중수업·전공선택제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5월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교육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대학이 학사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 9일 마련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각 대학은 5학기 이상의 학기도 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 대학 내에서도 학과(학부)·전공별로, 같은 학과 내에서도 학년별로, 학위과정별로 학기의 운영기간을 달리할 수 있게 되어 신입생 진로컨설팅, 실험·현장실습 등이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융합전공제 도입으로 기존 학과(부)는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전공의 설치·운영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종래 소속학과(부) 전공 이수 필수제가 폐지되고, 소속학과 전공, 연계전공, (국내·외 대학간)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전공선택제 등이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원) 입학 이전의 학습·연구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 도입, 통과정 중 학사 또는 석사학위 수여, 외국대학 학생이 국내 방문 없이 국내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제도, 원격수업 운영기준 마련 등의 과제도 빠른 시일 내에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36회 스승의 날 훈·포장 교원 초청 격려

교육부는 제36회 스승의 날을 맞이해 지난 5월 15 KBS홀에서 학교현장에서 제자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원들을 격려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스승의 날 기념행사에는 훈·포장 대상자, 모범교원, 교육관계자 등 300여 명을 초청하고 학교 현장에서 제자사랑에 솔선수범하고 있는 우수교원 3,692명을 선발해 정부 포상을 실시했다. 홍조근정훈장에는 울산 개운초등학교 한강희 교장 외 3명, 녹조근정훈장에는 동국대학교 신재호 교수 외 3명, 옥조근정훈장에는 강원 춘천계성학교 손현희 교사 외 3명, 근정포장에는 부산 주례여자고등학교 이민영 교사 외 11명이 수상했다. 이 외에도 대통령 표창 91명, 국무총리 표창 103명,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3,474명이 수상했다. < >



'내 마음의 선생님'에게 전하는 존경과 감사

교육부는 지난 5월 15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2017년 '내 마음의 선생님' 국민 사례 공모 시상식을 개최했다.

'내 마음의 선생님' 사례 공모 사업은 스승 존경 분위기 조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16년 KBS와 공동 협력하여 2년째 대국민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친 제자를 업고 수학여행에 나선 선생님 (사진부분 대상작)

시상식은 '제36회 스승의 날 기념식'과 함께 개최돼 스승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올해 대상 수상작은 수기편지 분야 '새 삶을 살게 해주신 선생님'(정은혜), '벽돌을 쌓듯 인생을 살아라'(이경화) 외 사진, 만화, 동영상 등 8편과 입상 24편이 선정됐다.

시상식에서는 어려운 가정형편과 아버지의 반대로 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워 포기하고 낙담하던 어린 시절, 선생님의 격려와 도움으로 역경을 딛고 학업을 이어 나가 임상병리사가 되어 선생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된 사연 등 특별한 사제지간의 사연들도 소개됐다.

한편, 2017년 '내 마음의 선생님' 사례 공모는 42일의 공모기간 동안 공모 누리집(www.myssam.kr) 접속자가 135만 명에 달하는 등 높은 관심과 성원 속에 진행됐으며, 편지·수기, 사진, 동영상 등 3,698편이 접수됐다. 이어 사전 심사 및 1차 심사에서 통과된 64편 중, 온라인 투표와 2차 선정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입상작 32편을 선정했다.

이벤트 01

『행복한 교육』 열혈 독자를 찾습니다!

『행복한 교육』을 열심히 읽으신다고요? 그렇다면 열혈 독자 이벤트에 응모해 주세요. 『행복한 교육』을 통해 알게 된 교육 정책이 있으면 3줄 이내로 사연을 올려주세요.

이벤트 02

『행복한 교육』 서포터즈를 찾습니다!

『행복한 교육』을 널리 알리는 서포터즈로 활약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서포터즈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행복한 교육』을 소개하거나 기사를 링크한 화면을 캡처해 올려주세요.

매달 20일까지 '행복한 교육(happyedu.moe.go.kr) 홈페이지 → 이벤트 참여'에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께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 (02)2271-0992

지난호 이벤트 당첨자

“인성교육 중심학교가 갖는 건 알게 되겠어요. 요즘은 공부만 강요하다보니 이기적인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부터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였으면 합니다.” 이주현
이주현 외 이춘임 이명근 백귀혜 강현우 님 축하드립니다.

발행일 2017년 6월 1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
편집인 대변인 주명현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최기수
교육연구사 김지선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변인실 431호
TEL 044-203-6580

편집실
편집장 황자경
기자 이순이 한주희
사진 김경수 최원석 이대원
디자인 김수지
영업 류광민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TEL 02-2271-0992

가격 1,700원

<https://happyedu.moe.go.kr/>

『행복한 교육』 웹진에서 더 풍부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지면 관계상 책에 실지 못한 원고 전문과 지역 교육뉴스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발행하는 교육정책 정보지 『행복한 교육』을 교무실에서,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받아 보세요.
『행복한 교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구독을 신청하시면 무료로 『행복한 교육』을 보내드립니다.
문의 : (02) 2271-0992

- 신청 안내** 홈페이지(<http://happyedu.moe.go.kr>)
- 구독신청
 - 개인(모니터단) 신청하기
 - 학교단위 신청하기
 - 교육모임 신청하기

대학생, 학부모 여러분! 2학기에도 국가장학금!

등록금납부 부담이 쏙 ↓

1차신청하면 우선감면되어 납부액 부담이 줄어요!

재학생은 꼭
1차 신청!



2017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 신청기간**
5월 17일(수) 9시 ~ 6월 14일(수) 18시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지막 날은 18시까지)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5월 17일(수) 9시 ~ 6월 20일(화) 18시
▶ 소득구간(분위) 산정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신청 필요(단, 기존에 정보제공 동의한 경우는 제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상단메뉴)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에서 가구원 동의 가능(미혼의 경우 부·모, 기혼의 경우 배우자)
- 신청대상**
국내대학 재학생 및 복학생, 신·편입학생
※ 1학기 신입생은 재학생으로 신청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www.kosaf.go.kr 접속 후 신청
▶ 서류제출 방법 : 신청 익일 홈페이지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장학금신청현황 > 제출서류에서 제출서류 확인 가능
- 신청문의 1599-2000**